

‘유출’ 아닌 ‘노출’로 책임축소 급급… 결국 소송 역풍

유통공통의 민낯

〈上〉韓 소비자 기만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도 CEO 사과뿐, 피해 보상은 없어 국내 압도적 지배력에 ‘고자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 쿠팡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임과 사과 대신 처벌과 보상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축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논란이 터진 후 쿠팡은 적극적으로 사과하기보다 잘못을 축소하고 덮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 후 올린 여러차례 입장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지문에 노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쿠팡은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7일 공고를 ‘유출’로 수정하고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시했다.

쿠팡은 중국인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빼돌린 상황에서 직접적인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

벌을 피하기 위함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록한 쿠팡은 이론상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회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방어 논리로 보이지만 현행 법상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기에 해킹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모두 유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조용해질 때까지 숨기에 급급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달 30일 박대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마지막으로 어떤 보도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에선 상황별 응대 가이드를 두고 전체 답변 중 30%가 “조사 중이라 답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가운데 유료 구독을 끊겠다는 고객에겐 현금 보상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통해 책임을 피

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내 업무를 박 대표에게 맡긴 채 두문불출한 상황이다.

쿠팡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김 의장은 미국 상장 법인을 통해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가 사직에서는 빠져 있다”며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전문 경영인에게 미루는, 최근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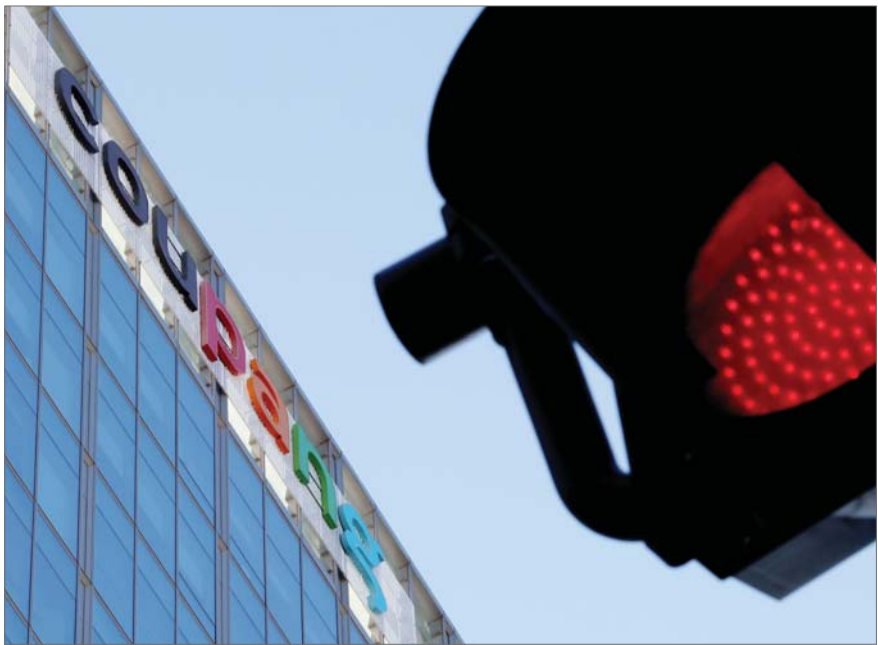
국회·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은 올해 국회·정부 출신 대관 인사만 18명을 영입했다.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쿠팡의 책임 회피 자세는 피해 구제 절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박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은 빠져 있다. 쿠팡 측은 지난 7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피해 보상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처럼 고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자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안내를 제공지한 가운데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쿠팡은 “공지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통지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라며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LG엔솔-벤츠 전동화 동맹 누적 협력 20조 돌파 예상

2조 규모 배터리 추가공급 계약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활용 주목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양사 간 전기차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8일 업계에 따르면 LG엔솔은 공시를 통해 오는 2028년 3월부터 2035년 6월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벤츠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14억 달러(2조601억원)로, 이는 LG엔솔 지난해 매출의 약 8%에 해당한다. 공급 물량과 단가는 벤츠의 중장기 생산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벤츠의 협력은 최근 2년간 빠르게 확대돼 왔다. 양사는 지난해와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50GWh 규모의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50.5GWh, 올해 9월에는 미국 75GWh와 유럽 32GWh 규모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LG엔솔은 정확한 거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해당 계약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규 계약까지 포함하면 누적 협력 금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 물량이

벤츠의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판매량 확대를 위한 대중형 모델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벤츠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0종 이상의 신형 전기차 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엔트리급부터 프리미엄급까지 다양한 EV 라인업 확장의 지를 드러냈다.

LG엔솔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원통형 46리치, 중저가·표준형 모델용 중니켈(Mid-Ni) 파우치형 배터리, 그리고 대중적 수요가 높은 LFP 배터리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가운데, LG엔솔은 안정적인 고장기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한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북미·유럽 지역 생산 설비 확충과 고객별 맞춤형 공급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범위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어 대중형 전기차 확대 전략과 맞물려 향후 LG엔솔과 벤츠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분권·균형발전·자치강화는 국가적 생존 전략”

李대통령 ‘지방시대추진 보고회’ 주재 5급3특 전략으로 新 동력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5급3특 국가균형 전략’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재명표 지방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급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급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최근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급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국토를 재편하자는 전략이다.

5급3특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에서 발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자리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5급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된 바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략 발표에서 “이제는 권역별로 전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 시작… 성탄절께 이전 마무리

/사진 뉴시스

▲민주당,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우려 제기… “위헌 소지” “재판 지연 우려”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 “맞고소는 후안무치”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변화된 남북관계 국민인식 반영”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오늘 기소… 김과 김일상의

▲한미, ‘비핵화’ 빠진 美국가안보전략에 “정상 팩트시트에 기술”

반복되는 코스닥 대형주 이탈 ‘코스피 2부 리그’ 우려 커져

시총 1위 알테오젠 이전상장 결정
몸집 커지면 코스피 도전 이어져
증권가 “‘한국형 나스닥’ 갈 길 멀어”

“알테오젠이 떠나네요. 요즘 코스닥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A 씨(37)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12월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총 1위 기업 마저 시장을 등지자 ‘천스닥’(코스닥 1000)이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25년 전 짝은 최고점(2,834.40)은 더더욱 갈 길이 멀다.

8일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소식에 ‘코스닥 개미’들은 더욱 심란하다. 코스닥 대형주들의 잇따른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살아나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큰돈을 장기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으니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 알테오젠, 이전 상장 저주 풀리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알테오젠은 순차적으로 유가증권시

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알테오젠은 공시를 통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목적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할 시 시가총액 30조원 이상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알테오젠의 시총을 감안할 시장이 있다면 30조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로자임을 예로 들면, 알테오젠은 로열티 수익으로 분기당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영업이익률도 분기당 50%를 초과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찬물 끼얹나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 당국이 구제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 공제 한도를 늘려 부동산으로 못 가는 개인 투자금을 끌어오거나 연금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7월 말 코스닥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국민연금에 보유 자산의 3%를 코스닥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00조원 넘는 운용 자산 중 3%면 약 40조원가량이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의 8%에 달

한다.

그러나 대형주의 잇따른 이전 상장으로 시장에서는 ‘코스피 2부 리그’ 우려가 다시 제기된다. 그동안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투자할 종목이 마땅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코스피 시장으로 ‘출발’ 하는 일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코웨이, 포스코DX 등은 모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이 모두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된 것과는 대조된다. 코스닥은 본래 기술 중심의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1996년 출범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한국의 나스닥’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시장 대형 기업의 이전상장은 다른 이전 상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보안 무너진 이통3사… 한해 장사 망쳤다

올해 초부터 보안 참사 줄이어
사태 수습 등 수익성 악화 불가피

2025년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보안 재앙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통신 3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유심(USIM) 해킹부터 통화 내역 유출까지 연쇄적인 보안 참사를 일으키며 실적 충격과 함께 정부의 ‘ISMS-P 전면 수술’이라는 규제 역풍을 동시에 맞았다.

보안 사고의 시작은 SKT였다. SKT는 지난 4월,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2324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암호키(Ki) 등이 유출됐다. 통신의 핵심이자 ‘디지털 신분증’이 나뉘는 유심 정보가 통째로 털린 이 사고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단일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135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해커들이 KT의 관리망 밖에 방치된 초소형 기지국(웜도셀)을 통해 가입자 2만 2227명의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증서 재사용, 암호화 미비 등 보안 수칙 위반이 확인됐고, 일부 가입자는 금전 피해(스미싱 등)까지 입었다. KT는 사고 인지 후 당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국 신고 없이 서버를 교체했다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 못매를 맞았다.

LG유플러스는 해킹이 아닌 직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났다. 야심 차게 출시한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가입자 36명의 통화 내용 요약본이 엉뚱한 타인 101명에게 노출된 것이다. “금융 정보 유출은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밀해야 할 통화 내용이 생중계됐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내 전화도 누가 듣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포에 떨었다.

잇따른 사고의 여파는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통신사들을 사상 초유의 실적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SK텔레콤은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0.9% 폭락

한 484억 원에 그쳤다. 5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보상 패키지(요금 감면, 데이터 제공) 비용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일시에 반영된 결과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T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가입자가 유입되며 매출이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폭풍 전야’에 불과하다. KT는 해킹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비용이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 역시 익시오 사태 수습과 희망퇴직 비용(약 1500억 원)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연달아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통신사들의 무리한 ‘탈(脫)통신’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3사 모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사업에 조 단위 투자를 쏟아부으며 ‘AI 컴파니’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사이, 본업인 통신망 관리와 보안이라는 기초 체력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전환은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인데,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이를 두고 ‘기분을 소홀히 했다’고 매도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BNK금융, 차기회장에 빈대인 후보 추천

빈대인 회장, 사실상 연임 성공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빈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3년 더 그룹을 이끌게 된다.

8일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광주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빈 회장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남아있음에도 지속가능한 경영과 조직 안정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추위는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 등 4명을 차기 회장 숫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업계에선 숫리



스트 공개 이후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빈 회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부산 동래원예고와 경성대법

학과 졸업 후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지난 2013년 경영진으로 선임돼 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신금융사업본부장,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4월 은행장 경영공백 때 직무대행에 선임된 후 2017년 9월 은행장 자리에 올랐다. 2021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그룹을 떠난 지 2년 만인 2023년 3월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털어내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BNK금융의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4조950억원으로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뛰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내년 서울~수서 KTX·SRT 통합운영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서울역발 고속철도인KTX와수서발 SRT가 통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수서발고속철도 에스아르(SR)간 철도 통합이 내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수서역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에 나선다. 그 시작으로 내년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0량, 955석 규모로 SRT보다 좌석수가 많은 KTX-1 차량을 수서역에 투입해 운행하고, SRT 열차도 서울역 출발을 하는 등 기·종점 구분없이 교차

투입하는 방식이다.

교차 운행에 대비해 새로운 구간에 투입되는 기관사의 예비운행 구간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성 검증을 비롯한 영업준비를 마치면 내년 3월부터 교차운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코레일톡과 SRT앱으로 나눠 예약매 시스템도 통합한다. 두 앱에서 열차표를 검색하면 KTX와 SRT를 불문하고 가까운 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코레일과 SR고속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좌석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KTX와 SRT 통합 편성·운행을 하게 되면 서울~부산의 기존 노선 외에도 서울~수서~포항~부산으로 연결돼 차량 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시스

대만선 친소비자 정책… 韓 역차별 논란도

》 1면 ‘유출 아닌 노출로…’서 계속

쿠팡의 한국 내 로켓배송 등 프로덕트커머스 매출은 전체의 8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지만, 이미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탓에 소비자 보호보다는 면책 조항 강화 등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시장 개척에 나선 대만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 대만 쿠팡 약관에는 “모호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내에는 없는 생체 인식 보안 ‘패스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격적인 친소비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잡은 물고기’인 한국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하고, 신규 시장인 대만 소비자에게만 공을 들이는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도 책임 회피에 나선 쿠팡은 집단소송이라는 격격탄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3370만명이라는 역대급 유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유출’ 사실을 재공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쿠팡이 법적 분쟁과 주가 방어를 위해 사태의 중대성 판단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시장의 불신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뉴욕 소재 로펌 DJS Law 그룹은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지 검토하겠다”며 손실을 본 주주 모집에 착수했고, 국내 법무법인 대륜 역시 미국 현지 법인과 연계해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쿠팡의 ‘침묵 전략’은 소비자를 빨나게 만들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제기… “신뢰기반 금융 인프라 혁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임박

민관, 디지털자산 활용 논의 활발
전문가들 해외 의존도 축소 목소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작해야”

“일반 가맹점들은 원화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길목에서 전자약정체결 기능 고도화(AML·KYC), 게이트키퍼 규제만 강화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



(왼쪽부터)김계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등이 토론회하고 있다. /나누리 기자

론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

블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감독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보자산이 부실해지거나 발행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안정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약정 체결 관문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고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마련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는 발행인 인가 제도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곳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할 수 있고, 일정한 개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낮은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을 두고 규제를 적

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 출시하고 시험 검증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권한 아래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행 유통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 스마트계약이 진행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기차, 중저가 중심 질서 재편… 캐즘 통과 국면 들어서

성능·충전 등 불확실성 감소 추세
혁신상품 단계 넘어 대중시장 진입

전기차 시장이 다시 분기점에 서고 있다. 글로벌 수요 증가, 보조금 상승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움직임들을 종합하면 전기차는 ‘혁신 상품’의 단계를 넘어 ‘대중 시장’으로 진입하는 캐즘 통과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먼저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메르세데스-벤츠의 협력 확대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벤츠 북미·유럽 생산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약 14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150GWh 장기계약까지 포함하면 20조 원이 넘는 파트너십이다.

이는 벤츠가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볼륨 모델 확대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로 방향을 바꿨음을 보여준다. LG



엘티셀즈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엔솔이 NCMA·LFP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점도 글로벌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 역시 명확하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EV5·EV4 등 합리적 가격대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2030년 친환경차 563만3000대 판매 ▲2030년 하이브리드 모델 28종 확대 ▲2027년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출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도입 ▲아이오

닉3등 현지 전략형 전기차 출시 지속 등을 추진한다.

수입차 시장의 흐름도 대중화 전환을 뒷받침한다. 테슬라는 모델 3·Y 가격을 최대 700만 원 인하하며 점유율을 회복했고, BMW·아우디도 중간 가격대 전기차 확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ID.4를 앞세워 국내 시장 재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프리미엄 이미지에 비해 가격·실사용 가치 중심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환경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가 차량 지원을 축소

하고 중저가 차량 중심으로 기준을 재편하면서 시장의 실수요 기반 확대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중 이미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내년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하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실제 유럽에서는 캐즘이 종료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량(유럽연합·유럽자유무역연합·영국 합산)은 202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2% 성장했다. 현재 판매량이 유지되면 연간 최대 판매량 경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다”며 “우수한 효율성과 충전 부담 해소라는 장점을 갖춘 만큼 소비자들의 호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DI ‘12월 경제동향’ “韓, 소비중심 경기 개선”

국내 경제가 소비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다만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통상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점은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11월 전망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어 이달에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라는 문구를 썼다. 경기 진단이 ‘둔화→완화→개선’으로 점차 상향되는 모습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와 밀접한 부분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교역이 다소 위축됐다고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이는 추석 명절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9~10월 2개월간의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폐 할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소매판매액은 낮은 추석의 영향으로 상승폭(2.2%→0.3%)이 축소됐으나, 9~10월 평균으로는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1.9%), 예술·스포츠·여가(9.4%) 등의 생산도 계절조정 전월대비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후폭풍… 독과점 등 규제 리스크 급부상

‘규제당국 심사·할리우드 반발’ 압초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의 할리우드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세기의 딜’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삼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규제 개입 시사와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라는 거대 압초를 만났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서비스(HBO·HBO 맥스) 부문을 분할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는 약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서 최대 830억 달러(약 12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인수를 미디어 산업의 권력 축이 전통적인 스튜디오에서 테크 기반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양사의 미국 내 유료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은 약 30%에 달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좁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넷플릭스는 이미 너무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할리우드 내부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영화인들과 노조는 이번 합병이 ‘영화 생태계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미국 작가조합(WGA)과 감독조합(DGA) 등 주요 노조 또한 성명을 내고 인수 차단을 촉구했다. 거대 바이어(넷플릭스-워너)의 탄생은 콘텐츠 구매처 감소로 이어져 제작 물량 축소, 임금 삭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다.

넷플릭스 측은 “창작 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2022년 이후 스트리밍 거품 붕괴와 파업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할리우드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서현 기자 seoh@

HD현대, 타밀나두 조선소 검토… ‘울산 닮은꼴’ 사업성 부각

현지 정부와 배타적 협약 체결
울산 기후 유사 투투쿠디 최적지
항만투자 확대 조선 인프라 개선
BEML과 항만 크레인 공동 개발
현지 조선소에 집 크레인 등 공급

HD현대가 인도 현지에 신규 조선소 설립을 검토한다.

HD현대는 지난 7일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 마두라이에서 스탈린 주 총리와 라자 주 산업부 장관,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도 정부는 세계 5위 조선·해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조선소 증설과 함께 신규 조선소 건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타밀나두,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등 5개 주를 신규 조선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해 최적의 부지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 주(州) 정부 투자청과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열 왼쪽부터 다레즈 아하메드(Darez Ahamed) 주 투자청장, 라자(T.R.B Rajaa) 주 산업부 장관, 스탈린(M.K Stalin) 주 총리,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 /HD현대

를 물색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타밀나두 주 정부는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 인력 확보 등을 내세우며 HD현대를 신규 조선소 건립 사업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

신규 조선소 건립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타밀나두 주 투투쿠디 지역

은 기온과 강수량 등이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과 유사해 최적의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데다 인근 항만 시설에도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HD현대는 이달 초 인도 남부 도시 벵

갈루루에서 인도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BEML과 ‘크레인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BEML은 국방·항공우주 장비, 광산 및 건설 중장비, 철도·지하철 차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벵갈루루와 콜라르 등 인도 남부 지역에 다수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는 BEML과 설계·생산·품질 검증 등 크레인 제작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인도 내 항만 크레인 제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인도 현지 조선소에 골리크 크레인고 집 크레인까지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삼호는 지난 2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조선소에 600톤급 골리크 크레인을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 또한 8월에는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HD현대에코비나를 인수하는 등 HD현대는 크레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도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강해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인도와 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edhale@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차량 전장 SW 연구분소 신설… 글로벌 R&D 확장

벵갈루루에 두 번째 SW 거점 구축
전장·ADAS 대응 차량용 SW 강화
지역 특성 반영한 R&D 이원화 추진

현대모비스가 인도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를 신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이원화 정책을 추진한다.

현대모비스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남부 벵갈루루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초 구축한 기존 하이데라바드 통합 연구센터에 이은 두번째 연구 거점이다. 최근 인도 자동차 시장이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이동하면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탑재 증가 추세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벵갈루루는 카



르나타카 주(州)의 대표 행정도시이자 글로벌 IT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다. 현

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 전 지역에 추가 거점을 검토해오다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이 우수한 벵갈루루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문 연구거점을 신설한 것은 우수 인재 확보 목적도 있다. 인도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인재 배출도 해당 지역의 산업에 크게 좌우된다.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사들도 인도 주요 도시마다 분소를 운영하는 추세다.

현대모비스는 벵갈루루에 인도 현지 고객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분소를 운영해 현지 고객사들의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 글로벌 수주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벵갈루루 분소를 인포테인먼트용 소프트웨어 전문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분소 신설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현지 연구개발 전략도 유연한 태세를 갖추게 됐다.

기존 하이데라바드 통합거점은 현지 연구개발 헤드쿼터로서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전략 수립과 글로벌 연구소와의 협업,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맡는다. 벵갈루루 분소는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 등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역을 담당한다. 두 거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 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인도 전역에 공장과 연구소 등 주요 거점을 운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첸나이와 아난타푸르의 두 생산거점에서 모듈과 핵심 부품을 생산중이며, 구루그람의 부품거점에서는 안정적인 A/S 부품 공급을 책임진다. 이번에 신설한 벵갈루루 분소와 함께 하이데라바드 통합연구거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델리와 첸나이에는 각각 구매센터와 품질센터를 운영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인도 현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의 수주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수주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오는 2028년까지 인도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주 금액을 올해 대비 6배 가량 상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성능·전장 카메라 수요 확대… LG이노텍·삼성전기, 설비·공장 투자 재개

아이폰·전기차 수요에 투자 확대
LG이노텍, 광학 기술 강화 추진
삼성전기, 멕시코 공장 재가동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부진을 겪던 국내 카메라모듈 업계가 다시 투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이폰 17 수요 폭발과 전장용 카메라모듈 채택 확대가 맞물리며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사업 전망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투자를 잇달아 늘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의 카메라모듈 사업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사업부의 올 3분기 누계 매출은 11조6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LG이노텍의 광학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루션 누계 투자 금액은 3016억원으로 사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에는 광학솔루션 사업부 시설투자에 3411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광학솔루션 사업 신모델 대응 및 경쟁력

향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G이노텍의 이번 시설투자가 애플이 내년 출시할 아이폰18에 가변조리개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LG이노텍이 중국 경쟁사들과의 기

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광학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균판매단가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LG이노텍은 고배율 줌, 대형 이미지센서, 광학 손떨림 방지(OIS) 등 차세대 광학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3분기 누적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이 2조8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9361억원)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카메라모듈의 평균판매가 가격이 전년 대비 1.3% 상승해 제품 가격 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을 띠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및 완성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내 카메라 모듈 공장 건설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투자 규모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전장 중심의 카메라모듈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기가 초기에 공장 가동 시점을 투자 착수 후 1~2년으로 설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추진에 따른 생산 개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2027년 쯤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삼성전기는 지난 2023년 11월 멕시코 케레타로에 법인을 세우며 현지 공장 설립을 준비했다. 테슬라·포드·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돼 올해 초 해당 투자를 일시 보류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 KB국민은행의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솔루션 •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KB의 AI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케이봇샘**

일도 자산도 중요한 당신을 위한
투자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1:1 종합자산관리

KB GOLD & WISE

황금빛 인생을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연금관리부터 증여, 건강관리까지 은퇴 종합 관리 솔루션

KB 골든라이프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계약 필독 -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투자성향분석 결과 부적합시 가입 불가 -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 비보장 - 로보샘(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테스트베드 통과가 수익 달성 비보장 - AI 포트폴리오(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음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97-6호(2025.07.08.), 유효기간 2025.07.08.~2026.06.30.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901호 (2025.7.11.~2026.7.10.)

 **KB 국민은행**

“대기업 지방 투자유치, ‘5극3특’ 균형성장 마중물 될 것”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김경수 위원장 “대기업 투자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 육성 5종 패키지 통해 지방 투자 유도 고등인재 양성기관, 규제완화 필요 메가 특구로 매력적인 투자처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대기업’을 꼽았다. 정부의 패키지 혜택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지방의 산업, 학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폐해 심각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지난 2019년에 50%를 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국내 500대 기업의 55%,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 R&D 투자와 벤처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과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이하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6만60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40대 이상은 2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뉴시스

1000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과 동남권 양축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화 시기, IT(정보기술)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수도권 투자가 집중됐던 정보화 시대를 넘어 3세대 AI(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 지역 경제 살릴 ‘대기업 투자’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대기업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역 경제 부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사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각종 패키지 혜택을 줘서 지방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

에 과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를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1400조원의 투자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 고급 인재 육성에 스타트업 진흥까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역의 산업과 학계와 연계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진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라며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미래·첨단 산업의 경우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 첨단 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이야기”라며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성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의 4개의 과학기술원, 포스텍, 한전공대의 예를 들며 충분히 역량 있는 고등 인재 양성 기관을 키워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게 할 ‘규제 완화’에도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제 문제”라며 “특히, 첨단 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Mega) 특구를 통해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법’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위헌소지 최소화 위해 보완·수정 의견 수렴 후 다음 의총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



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 관련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독립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가담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사진)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

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3명, 법무부장관 3명, 판사회의 3명 추천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가 구성되면 사법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의총을 통해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도 나왔냐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역적죄다.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발미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박대홍 기자

국민의힘, 국민고발회 열고 ‘법 왜곡죄’ 등 쟁점법안 규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성 필리버스터 해제요건 완화 등 설명

국민의힘이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규탄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에서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으로 분야를 나눈 국민고발회를 열고 쟁점법안들에 대한 당의 반대 논거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공포정치·정치보복’ 분야에선 검사·판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

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명 변호사가 다뤘다.

‘사법부 파괴’ 분야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으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국민 입틀막’ 분야에선 오정환 전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전체적인 발제를 맡았고,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홍세욱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에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

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의 이유를 두고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홍 기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성과보다 ‘질적 성장’... 신한라이프 수장 교체

이영중 ‘최대실적’에도 교체 단행
진옥동 질적 성장 중심 기조 천명
비은행부문 경쟁력 강화 목표 제시
천상영, 재무역량 기반 혁신 추진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도 신한라이프를 이끌던 이영중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통합 법인 안정화와 ‘TOP2도약’을 내걸고 생명보험업계 판도를 흔든 성과에도, 신한금융은 ‘성과의 질’과 ‘새로운 리더십’을 이유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5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4개 자회사 가운데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로는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그룹재무부문 담당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진옥동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의 역할,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내부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의도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영중 신한라이프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

사장의 성과는 분명하다. 신한라이프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은 2022년 4494억원, 2023년 4724억원, 2024년 5284억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1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늘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신한라이프는 업계 ‘빅3’ 구도를 흔드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영중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TOP2를 향한 질주, 밸류업 투게더(Value-Up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위권 도약을 공식화했다. ‘고객 편의성 제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영업 경쟁력 혁신,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성과 확대’라는 세 축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생보사간 순위 경쟁에 불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후보

을 지켰다.

실적의 바탕에는 포트폴리오 전환과 체질 개선 전략이 있었다. 신한라이프는 저축성 상품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IFRS17(보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금리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3분기 누적 투자손익을 전년 대비 약 50% 가까이 끌어 올리는 등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

영업 전략도 공격적이었다. 이 사장은 영업전략회의를 통해 설계사(FC)와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축으로 한 영업 경쟁력 혁신을 주문했다. GA 조직을 별도 본부로 격상하고 지원 기능을 정비해 생산성과 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채널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런 맥락에서 천상영 후보의 발탁은 ‘성장 이후의 선택’이란 해석이 따른다. 1969년생인 천 후보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지점장, 신한카드 글로벌사업본부장,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원신한지원 본부장 등을 거친 재무·전략통이다. 2020년대 들어선 지주 그룹재무부문 담당 부사장(CFO)으로서 자본정책과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전반을 맡아왔다. 지난해부터는 신한라이프 이사회에도 참여해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해온 인물로 꼽힌다.

진옥동 2기 체제가 천 후보에게 부여한 과제는 뚜렷하다. 단기 실적과 외형 성장을 이영중 체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자본 효율성, 위험 기반 수익 구조,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사업에서의 질적 성과를 끌어올려 ‘비은행 1등 계열사’로서 입지를 굳히라는 주문에 가깝다.

자경위는 “새 리더십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할 시점”이라며 “천 후보가 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신한라이프를 더 탄탄한 회사로 업그레이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한은행 올해 ‘금 투자’ 불티 골드바 3000kg 거래

신한은행이 올해 골드바 누적 거래량이 3000kg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1월 30일 기준 신한은행 브랜드 골드바와 매대대행 골드바의 판매 및 재매입을 거래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같은 기간 누적 거래금액은 약 4843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 브랜드 골드바는 실시간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국제 금 가격 기준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신한은행 브랜드 골드바는 런던금시장협회(LBMA·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순도 99.99%의 국제 표준 골드바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통장으로 자유롭게 골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신한 골드리슈’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0.01g 단위로 입·출금이 가능해 소액 투자도 가능하며,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 솔(SOL)뱅크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다. 올해 골드리슈 계좌의 신규 및 거래 금액은 8565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골드바 거래량 3000kg 돌파는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안정성과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다양한 골드 및 실버 관련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안정 연임” vs “금고 중심 개혁” vs “홈플러스 인수”

〈김인〉

〈유재춘〉

〈장재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3파전

김인, 건전성 강화 기조 유지
유재춘, 중앙회 구조 개편 강조
장재곤, 대형 유통 인수 구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인 현 회장에게 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7일 치러진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현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된다. 제19대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20대 선거 역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며, 본 선거는 17일 충남 천안



김인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유재춘 이사장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장재곤 이사장
종로광장새마을금고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큰 결은 안정과 개혁으로 나뉜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선 김인 현 회장이 연임할 경우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18대 회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오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19대 회장직에 올랐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금고 건전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2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던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9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김 회장의 재임이 무산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개별 금고의 이익’에 선거 공약 초점을 맞췄다. 유 이사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앙회를 지시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앙회 이익이 아닌 금고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홈플러스 인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았다. 금융과 유통을 연결하는 국내 첫 상생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인수에 1조 5000억원~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1조 2000억원을 중앙회가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를 조성해 인수 금액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홈플러스의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자 유통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하고 나선 상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홈플러스를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 해도 새마을금고가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입후보 개별 리스크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은 금고 여성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각식 참석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소각은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프 마루에서 개최된 새도약기

금 소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빚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0월 시작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조 2000억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은 5조 4000억원

(34만명), 2차 매입은 8000억원(7만 6000명)이다.

이날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 지원 수급자) 보유분 1조 1000억원, 7만 명분을 소각했다.

1차 소각 연체 채권은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소각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

를 상회했고, 연체기간은 20년 이상 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했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각,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호반산업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최고 경쟁률 143.8대 1

호반그룹은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가 최고 143.8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세대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6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 1497건이 몰려 평균 43.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B 타입은 1순위 기타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인 143.83대 1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점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인천 검단신도시의 최종심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넥스트 콤플렉스(예정)와 법조타운(예정)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도 이번 청약 흥행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 84㎡·97㎡ 총 9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2월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2월 23일부터 나흘간이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호반양 아파트다. 계약 후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아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호미쓰이화학, MDI 수요 호황 타고 글로벌 판도 재편

여수에 연산 20만톤 신규라인 가동
70개국, 250여개社 공급체제 갖춰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 적용도
美 LNG 수출량 확대 등 우호적 환경

금호미쓰이화학이 K-조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경쟁력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인 LNG선의 성능을 좌우하는 보냉재 원료 MDI(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시장에서 글로벌 톱5 과점 구도에 맞서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업황 반등 기대 속에 대규모 증설과 친환경 공정을 앞세워 시장 입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화학 분석기관 OPIS는 최근 글로벌 MDI 시장이 중국 완화화학(완화), 독일 BASF·코베스트로, 미국 헌츠먼·다우 등 5개사가 80% 안팎을 점유하는 대표적 장치산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2공장.

업 과점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난도 공정과 조 단위 투자, 긴 회수 기간 등으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특성상 국내 기업 중에서는 금호미쓰이화학만이 본격 경쟁 구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지난 4월 약 5700억원을 들여 여수에 연산 20만t 규모 신

규 MDI 라인을 가동했다. 국내 전체 생산능력은 41만t에서 61만t으로 약 50% 확대됐으며 단일 공장 기준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LNG 보냉재를 포함해 전 세계 70개국 250여 고객사에 공급 가능한 체제를 갖추며 글로벌 본격 경쟁 구도에 뛰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수 공장에는 폐수를 염소·가성소다로 환원해 재사용하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이 적용됐다.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오 나프타·재생 메탄을 기반 제품을 통해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ISCC PLUS도 유지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DI리서치는 글로벌 MDI 시장이 올해 205억달러에서 2032년 26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연평균성장률 3.74%). LNG 운반선 발주와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 용도 비중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나증권은 미국 LNG 수출량이 지난달 1070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 오는 2030년까지 미국 LNG 수출량이 75% 추가 증가하고 카타르의 증산까지 더해지며 LNG 운반선용 보냉재와 MDI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현물 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나

타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지난달 중국 수출용 액화 MDI 가격을 톤당 2000~2050달러에서 2100달러(CIF) 수준으로 인상했다. 업계는 수요 회복과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대외 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중국산 MDI에 376~51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비중 축소(57%)에 따른 대체 공급원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한국산 제품의 북미 시장 진입 기회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 교수는 “중국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워낙 높아 국내 기업이 쉽게 뛰어 들기 어려운 구조”라며 “금호미쓰이화학의 증설과 시장 대응이 향후 글로벌 MDI 경쟁 구도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손·발 떼도 스스로 주행… ‘핸즈프리’로 운전 중 여유 즐긴다

YG의 CAR TALK **카톡**

GM 에스컬레이드 IQ

2.3만km 구간서 ‘슈퍼크루즈’ 지원
전면부에 345리터 e-트렁크 마련
전·후륜 각 354마력 모터로 가속력

자유로를 시속 90km로 주행하는 차에서 손과 발을 떼자 스스로 차선을 따라 이동했다. 또 앞차가 저속으로 주행중이면 스스로 차선을 바꿔 차량을 추월해 나갔다.

제너럴모터스(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이 국내 처음 선보인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에스컬레이드 IQ를 시승하면서 경험한 내용이다. 기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의 한계를 뛰어



에스컬레이드 IQ.

넘는 기술이다.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모델로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차량 스스로 도로 환경을 파악해 주행한다.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

호텔을 출발해 과주 파평면에 있는 한 카페까지 왕복 약 88km구간에서 에스컬레이드 IQ를 시승했다. 시승구간은 슈퍼크루즈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유로를 포함하고 있다.

차량에 탑승해 슈퍼크루즈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에 라이트 바가 초록색으로

변하며 핸즈프리 기능이 활성화 됐음을 알렸다. 차량은 차선을 따라 운행을 이어갔으며 저속 차량을 만나면 차선 변경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차량 운행이 없는 차선으로 이동하고 추월 후 처음 주행 차선으로 복귀했다. 시승 구간 직접 차를 주행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피로도는 크게 감소했다. 또 주행중 커피를 마시거나 짧은 시간 문자보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었다.

GM은 에스컬레이드 IQ에 국내 도로에서 라이더 스캔을 통해 구축한 자체 데이터를 적용해 일부 구간에서 슈퍼크루즈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약 2만3000km 구간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사

용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드 IQ의 또다른 매력은 전면부에 마련된 345리터 e-트렁크다. 대형 수납공간을 연상케할 정도로 깊이와 폭을 제공한다. 주차공간이 좁은 곳에서 트렁크까지 돌아가지 않고도 가벼운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스컬레이드 IQ는 뛰어난 정속성과 가속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공차중량이 4.2톤을 넘는 초대형 SUV지만 가속 페달에 발만 살짝 얹어도 부드럽게 속도를 높였다. 전·후륜 각 354마력(260kW)의 모터가 합산 108.5kg·m의 최대 토크를 뽑아냈다. 특히 이 차량은 노면 소음과 풍절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줬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2열 시트 조절은 수동 레버로 조정해야한다는 점이다. 또 가격이 2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모델로 자리잡긴 힘들어 보인다. 에스컬레이드 IQ의 국내 판매 가격은 2억 775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HJ중공업, 해군 신형 고속정 4척 통합진수 현대제철, 경기 남부에 ‘슈레더’ 설비 구축

기준比 화력·생존성·임무수행능력 ↑

HJ중공업은 8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연안방어를 담당하는 해군 전력인 국산 신형 고속정 4척에 대한 통합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진수 고속정은 HJ중공업이 지난 2022년 해군의 신형 고속정(PKX-B Batch-II) 확보 사업에 따라 건조한 첫 4척이다.

신형 고속정(PKMR)은 노후화된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PKM)을 대체해 연안방어 임무를 맡게 될 해군의 차기 고속정이다. 최신 전투체계와 130mm 유도로켓, 전자전 장비, 대유도탄 기만체계를 갖춰 기존 고속정보다 화력과 생존성,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워터제트 추진체계를 적용해 연근해·저수심 해역에서도 어망 간섭 없이 작전이 가능하며 핵심 구역의 방탄 성능 강화와 내충격 설계, 방화격벽, 스틸스 건조공법 등을 통해 선체 구조를 개선,

함정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HJ중공업은 앞서 해군의 신형 고속정(PKX-B Batch-I) 건조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6척 전량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이어 개량 사항을 반영한 2단계 사업(Batch-II)에서도 현재까지 발주된 12척을 모두 수주하며 사업 수행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972년 첫 국산 고속정을 시작으로 신형 고속정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고속정 개발 역사를 이어온 HJ중공업은 국내 대표 함정 전문 방산업체로 꼽힌다. 이번에 진수된 고속정 역시 전 과정이 HJ중공업의 자체 기술로 이뤄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첫 신형 고속정을 진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척의 신형 고속정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며 “함정 전문 방위사업체로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K-방산의 위상 제고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현대제철, 경기 남부에 ‘슈레더’ 설비 구축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2032년까지 총 1700억 투자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도입 등을 통해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건설 자재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을 고속 회전하는 해머로 파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가공된 철스크랩은 철 함유량과 균질도가 높은 고급 철스크랩으로, ‘슈레디드 스크랩’으로 불린다.

현대제철은 220억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지역에 슈레더를 비롯해 파쇄-선별-정제’로 이어지는 원료 고도화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 운영사를 통해 노폐 스크랩을 고급 철스크랩으로 가공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슈레더와 정제 라인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기 남부권 원료 고도화 설비에는 고속 해머 파쇄설비, 비철·비자성 금속 분리장치, 분진 집진시스템, 품질 검사 및 이송 설비 등이 적용되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8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철스크랩을 고품질 철스크랩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품질 향상을 위해 이미 지난해 포항공장에 철스크랩 선별·정제 파일럿 설비를 도입해 내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국책과제 신청을 통해 연구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금속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급 철스크랩인 ‘생철’ 확보에 더해 노폐 스크랩을 가공해 품질을 끌어올림으로써 부족한 고급 철스크랩을 대체하는 원료 고급화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LG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며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선도한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제품에 대해 글로벌 안전과학 검증기업 UL솔루션즈(UL Solutions)로부터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ISO·SAE 21434)’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완성차 및 모빌리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인증을 선제적으로 획득했다. 디스플레이 개발 단계에서 해킹이 어렵도록 설계하고, 생산 단계에서 회로에 보안 강화 장치를 마련해 인증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소기업 선별·지속 지원이 효과… 예산 ‘크게’보다 ‘자주’”

중기중앙회·중기연, 中企 정책방향
8년 수혜기업 4.4% 성장, 비수혜 0.3%
정책지원 기업폐업률 절반 이하 감소
최세경 “성장잠재 소기업 지원 필요”
반복지원, 고성장 전환·유지 효과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지원하는게 중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도 ‘크게’ 나눠주는 것보다 ‘자주’ 지원하는게 더욱 실효성이 높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중기연구원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 효과 연구’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 집단에서 소상공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왼쪽 4번째부터)노용석 중기부 차관,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주현 중기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소기업→중기업 성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누적)를 분석한 결과 지원을 받은 수혜집단에선 4.4%의 기업 규모가 성장했다. 반면 비수혜집단에선 0.3%만 몸집이 커졌다. 지원 여부에 따라 수혜집단에 속한 기업의 성장 비율이 비수혜집단보다 10배가 높은 모습이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수혜집단은 3.7%였지만 비수혜집단은 0.3%에 그쳤다. 소기업에서 중기업

으로의 성장한 기업 역시 수혜집단(11.7%)이 비수혜집단(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정책 지원은 폐업 숫자를 줄이는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대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폐업비율은 정책 수혜기업(26.5%)이 비수혜기업(51.9%)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규모가 꾸준히 성장한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부 지원액을 1% 늘릴 경우 이런 지속성장 추세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

률도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상승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문닫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도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기연구원 김준업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이 정책지원을 받으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50~100%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성장세

를 유지할 확률도 20% 가량 상승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기업의 고성장 기업 전환은 지원금액의 ‘크기’보다 ‘빈도’가 더욱 중요하다. 다시말하면 한번에 큰 지원을 받기보다 ‘연결된 반복 지원’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그중에서도 수출, 창업, 기술 분야의 반복적 수혜가 핵심인데 이 역시 단발성 지원보다는 패키지 지원, 트랙 기반 지원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 분야 중심’에 집중하되 ‘효과적 정책 조합’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이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누구나의 목표인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병권 “청년 소상공인 성장 기반 확충”

(중기부 2차관)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브랜딩·판로·성장 고민 공유
청년창업 생태계 강화 방안 논의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소상공인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들은 감각적 브랜딩, 빠른 적응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체이며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 대표 10명과 학계 전문가, 브랜딩·유통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박승배 교수는 청년 창업이 소상공인 생태계 전체의 혁신 동력임을 강조하고, 브랜딩·콘텐츠 기반 경쟁력과 시장 적응력 등 청년세대의 강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8일 서울 영등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성장 주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점을 조명했다. 청년 소상공인인 노지현 ‘느린떡거리 부각’ 대표는 전통 식재료인 부각을 활용한 브랜드 창업 경험을 소개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와 미국 수출 준비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전했다.

28세에 창업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사업 확장과 연합회 리더로 성장하기까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고민과 성장의 전환점을 전달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 등을 논

의했다.

토론에선 초기 창업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어려움, 청년 기반 로컬 브랜드의 성장 사례, 브랜딩·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 요소,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온라인 판로 활용, 청년 의견 청취 기반의 정책 설계 필요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와 경험에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SK인텔릭스, 안무인 신임 대표 선임

AI 웰니스 플랫폼 구축 역량 집중

SK인텔릭스가 안무인 전 SK스피드메이트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AI Wellness Platform Co.)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 경영진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해나가는 계획이다.

안무인 신임 대표는 SK스피드메이트 분사 이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AI·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업 모델을 연이어 선보이며 기업가치 제고를 견인했다.

SK인텔릭스는 안 대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렌탈BM(Business Model)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 성장 엔진 확장과 웰니스로보틱스사업 고도화를 통해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의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인텔릭스는 장태진 SK네트웍스 유통사업실장을 영업본부장으로 임명해 유통·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 영업 전반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SK인텔릭스는 AI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AI 웰니스 플랫폼 구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오픈 생태계(Open Ecosystem)를 기반으로 AI·로보틱스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수준의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성료

서울 강서 전통시장서 5번째 행사

홈앤쇼핑이 전통시장·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올해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했다.

홈앤쇼핑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올해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행사를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시장과 남부골목시장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1950년대 형성된 화곡본동시장은 다양한 먹거리 중심의 친근한 소규모 시장이다. 1970년대 이후 조성된 남부골목시장은 500m 이상 길게 이어진 대규모 시장으로 총 11개의 출입구를 갖춘 지역 대표 상권이다.

홈앤쇼핑은 화곡본동시장과 남부골목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장애인 시설, 아동센터, 미혼모 보호시설 등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 등을 가졌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지원, 방송 판매 기회 제공, 전통시장 전용 3분홍보 영상 제작, e-커머스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해 상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도 도왔다.

특히 홈앤쇼핑은 우수 소상공인을 선정해 홈쇼핑 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판로 확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파블로항공, 설립 7년 만에 ‘수출의 탑’

불꽃드론 F40 수출 30배 성장
군집AI 기반 해외 방산 시장 진출

군집AI 무인기·로봇 플랫폼 기업 파블로항공이 해외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며 설립 7년만에 ‘수출의 탑’ 최초 수상에 성공했다.

파블로항공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주최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1개년 실적 인정기간(2024.7~2025.6) 내 수출 실적을 230만달러로 인정받아 ‘2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파블로항공은 2021년 미국지사 설립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시작해 2023년 최초 수출실적(7만 6000달러)을 기록한 이후 약 3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단 3년만에 이뤄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2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파블로항공의 올해 주요 수출품목은 자체 개발한 국내 유일 불꽃드론 파블로 X F40이다. F40은 LED, 불꽃, 수상 퍼포먼스 등이 결합된 파블로항공의 ‘드론

아트쇼’ 전용 브랜드 파블로X의 대표 모델로, 공중 점화용 불꽃을 장착한 상태에서 서도 안정적인 군집 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FAA 비행 승인과 FCC 통신승인을 획득하며 세계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파블로항공은 지난해 F40 1068대를 투입해 자사 로고를 그리는 ‘불꽃드론쇼’ 퍼포먼스를 통해 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한 이후, 국내 대규모 이벤트 뿐 아니라 베트남, 미국, 중동국가 등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며 제품 수출을 넘어 공연 콘텐츠와 솔루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천혜의 자연과 함께 달리는 환상적인 라이딩! **2026**
영월 메디오폰도
 2026 YEONGWOL MEDIOFONDO

2026. 3. 29 SUN 09:00

08:00 영월 동강체육공원 집결

접수기간

2026년 1월 6일(화)

10:00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참가부문

사이클 / MTB

참가인원

선착순 2,000명

코스거리

78Km(메디오폰도)

참가비용

80,000원

참가신청

yowo-mfond.com

관련문의

02-6743-33304

yowo-mfond.com

◎ 대회관련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토종 OTT 합병 표류… 내부 갈등에 글로벌 공룡만 웃는다

티빙·웨이브 합병 연내 무산
KT 경영 공백에 불확실성 ↑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품어
국내 OTT 생태계 ‘적신호’

국내 토종 OTT의 ‘생존 승부수’로 꼽히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해를 넘기게 됐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항해야 할 국내 연합군은 주요 주주인 KT의 경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티빙과 웨이브의 연내 합병 본계약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KT의 신임 대표 선임 절차가 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KT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리고 16일 최종 1인을 선정할 예정이나,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선임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다. 합병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KT 측이 차기 대표 취임 전



티빙과 웨이브의 연내 합병 본계약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까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유보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통합 법인 출범 시기는 빨라야 2026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합병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KT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4월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은 “합병이 티빙 주주가 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잠식’ 우려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IPTV·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 거대 토종 OT

T의 탄생은 자사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는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웨이브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와 티빙 대주주인 CJENM 사이에서, 합병 후 KT의 지분율과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국내 사업자들이 내부 조율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1400만명이 넘는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확보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고, 최근에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통해 콘텐츠 제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위 쿠팡플레이 역시 스포츠 중계권과 ‘SN

L 코리아’ 등을 앞세워 티빙과 웨이브를 따돌리고 있다.

반면 티빙과 웨이브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의 늪에 빠졌다. 티빙은 지난 3분기 영업손실 폭이 확대됐고, 웨이브 역시 적자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작년부터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 본격화와 토종 OTT 육성을 위한 정책 논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콘텐츠 투자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공룡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까지 품으며 콘텐츠 제국을 완성해가는 마당에 국내 사업자끼리 이해득실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내년 3월 KT 새 수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실무 차원에서라도 합병의 불씨를 살려놓지 않는다면,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영원히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카카오

비즈니스 관리 채널

파트너센터 통합개편

카카오가 카카오프로젝트 관리 채널을 ‘파트너센터’로 통합 개편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마케터가 이용하는 카카오프로젝트 관리 채널을 ‘카카오프로젝트 파트너센터’로 통합 개편했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광고 등 비즈니스 서비스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

카카오프로젝트 파트너센터는 기존 카카오프로젝트 관리자센터,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센터, 카카오톡 매장관리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웹·모바일 통합 서비스다. 독채널 운영, 고객 관리, 매장 관리, 광고 집행과 성과 분석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고, 맞춤형 대시보드를 통해 운영 현황과 일정도 관리할 수 있다.

카카오는 통합 개편을 기념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가 비즈니스 채널을 개설하면 카카오톡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중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프로젝트 멤버십’을 출시하고 광고·마케팅, 매장 운영, 식자재 구매 혜택을 묶어 제공한다. 멤버십 이용료는 월 1만 4900원이며, 최대 4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하이브

다크문: 달의 제단

日서 애니로 만든다

하이브의 오리지널 웹툰 ‘다크문: 달의 제단’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내년 1월 공개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억부를 돌파한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 웹툰 ‘다크문: 달의 제단’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내년 1월 9일 공개된다. 작품은 일본 지상파 방송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플랫폼을 통해 방영한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총 12화 분량으로 사전 제작했으며, 일본 TV 채널 도쿄 MX, BS11, 군마TV, 토치기TV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크런치롤에서 선보인다. 본격 공개에 앞서 오는 28일 도쿄도 호 시네마즈 신주쿠에서 1·2화 사전 상영회도 열린다.

‘다크문: 달의 제단’은 엔하이픈과 협업한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 IP로, 일본 소니뮤직 계열사 애니플렉스가 애니메이션화를 맡았다. 음악 기업이 보유한 웹툰 IP를 기반으로 애니플렉스가 제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트로이카가 참여했다.

사전 상영회에는 엔하이픈 전 멤버와 작품에 참여한 인기 성우들이 무대 인사에 나선다.

/최빛나 기자

줄 서고, 체험하고, 환호하고… 서브컬처 팬덤의 힘 증명

르포

AGF 2025

관람객 10만명 운집 열기 최고조
1075부스 확대로 현장체험 강화

행사 첫날 아침,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앞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채워졌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관람객들은 두꺼운 외투 안에 캐릭터 굿즈를 품고 줄을 섰다. 국내 최대 규모 애니메이션 게임 축제 ‘AGF 2025’는 그렇게 팬들의 체온으로 시작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 AGF 2025에는 총 10만 518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8년 첫 개최 이후 6회 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규모와 운영, 참여 열기 모두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보다 약 40% 늘어난 관람객 수는 숫자 이상의 체감을 남겼다. 전시장 입구부터 동선 곳곳이 인파로 가득 찼고, 행사장은 종일 웅성거림과 환호로 채워졌다.

전시장 내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밀도였다. 올해 AGF에는 총 71개 출전사가 참여했고, 부스 수는 지



지스타 2025 행사장 전경.

/뉴시스

난해 851개에서 1075개로 대폭 늘었다. 킨텍스 제1전시장 1·2·3·4·5홀 전체를 채우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했다. 메인 스폰서 스마일게이트를 중심으로 갤럭시 스토어, 명일방주 엔드필드, 스튜디오비사이드, 메가박스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폰서가 참여했고 엔씨소프트, 넥슨, NHN, 네오위즈,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직접 부스를 꾸렸다.

현장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의 공간으로 작동했다. 관람객들은 신작 게임 시연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성우 토크와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스테이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한정판 MD 굿

즈 판매 부스 앞에는 하루 종일 대기 줄이 이어졌다.

3년 연속 AGF를 찾았다는 관람객 B씨는 “매년 규모가 커진다는 느낌을 받지만 올해는 체감이 확실히 달랐다”며 “보는 행사에서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기존 2일 일정에서 3일로 늘어난 행사 구성은 콘텐츠 소화 여유를 높였고, 동선 관리와 입장 시스템도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도입된 패스트 티켓은 올해 하루 1000명, 3일간 총 3000명 규모로 확대됐다. 사전 검표와 동시 입장 방식이 정착되며 평균 입장 시간은 약 1

클라우드웍스, 천안시 AI 교육사업 수주

클라우드웍스는 천안시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이후, 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실현

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과업은 ▲실무 역량 강화 중심의 AI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 ▲교육생 모집 및 AI 역량 진단 ▲최신 AI 트렌드를 반영한 세미나 기획·운영 등이 포함됐다. 천안시는 이를 통해 ▲천안 시민의 AI 활용 역량 고도

화 ▲지역 산업 연계 실무형 프로젝트 운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중심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웍스는 AI 교육 전문회사인 클라우드아카데미와 함께 본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김서현기자

환율급등에 서학개미 주춤… 국내투자·단기채 등 전략 분기점

환율 변동성 커지며 환전 부담 커져
전문가들 국내 투자비중 확대 전망
달러강세 기반 수익 선택 가능성도

#직장인 오 모 씨(38)는 국내 증시에 10년 동안 투자하다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해 작년 2분기(4~6월)부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주 다섯 개를 선별해 매수하기 시작했다. 12월 현재 미국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근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오 씨는 “미국 증시가 꾸준히 올라 수익은 좋지만, 환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당분간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일 생각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의 하루 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전달 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일 서울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장에서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의견과 환율 부담보다는 수익(미국시장)을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 양립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12월 1~5일) 서학개미들의 일평균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2억200만달러

(2969억원)로, 지난달 평균 2억9700만달러(4365억원) 대비 약 30%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보유한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짙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식 보관액 감소를 손절(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것)보다 환율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미국채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지난 달에 이어 알파벳(3억4004만달러)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8508만달러)가 2위에 올랐다.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는 대표적인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로,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자 차익 실현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국내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세제개편안 때문이다.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대상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된다.

다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현행 0%에서 0.05%,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소폭 상향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유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당은 가장 중요한 주주환원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시장 비중 축소 흐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개미들이 원화 가치 약세가 뉴노멀(새 기준)이 된다고 인식한다면 달러화로 수익을 불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 공격적 운용… ETF 선호 현상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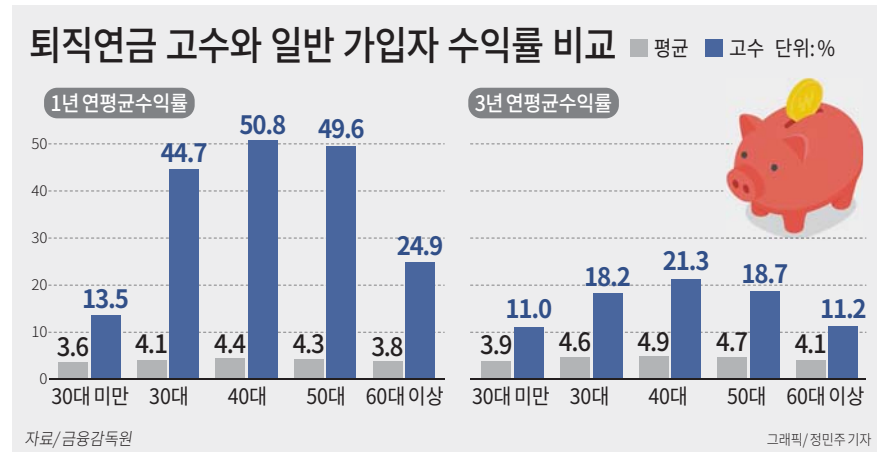
금감원 Q&A

‘퇴직연금 고수’ 전략 분석

자산 평균 79.5% 실적배당상품 투자
조산·방산·원자력 등 국내 시장 집중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이후, 수익률 상위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운용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성과와 자산 운용 방식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38.8%,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수익률(1년 4.2%, 3년 4.6%)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가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8.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은행 15.1%, 보험 13.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으로 짧은 30대 미만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 자산 운용에 들어간 60대 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공격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이들의 자산 가운데 평균 79.5%가 펀드·ETF·채권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돼 있었으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도 8.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증권권역 고수들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유 상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채권형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비중이 해외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수들은 조산·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는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 업종과도 맞물린 선

택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관련 상품 중심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형태에서는 ETF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적배당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처럼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정해주는 TDF(타겟데이트펀드) 활용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년간 TDF 수익률은 7.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3.4%)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후원

KB증권은 지난 4일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브라보비버(Bravo Beaver)’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정대교 KB증권 인사지원부 부사장(왼쪽 두번째부터), 박미정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 회장, 김은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NH-아문디자산운용 올원더풀 전용상품 출시

NH-아문디자산운용은 NH금융의 시니어브랜드 NH올원더풀 출시에 기해 전용상품 ‘올원더풀 N2 글로벌자산배분EMP’ 펀드명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시니어투자자의 주요 니즈인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화된 글로벌자산배분EMP 전략에 올원더풀 브랜드를 제일 처음 적용했다.

NH아문디 올원더풀 N2 글로벌자산배분EMP 펀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관련된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투자하는 ETF 자문 포트폴리오 펀드(EMP) 상품이다. NH투자증권 자산배분전략위원회에서 도출한 N2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해 NH금융그룹의 시너지를 집중시켰다.

중위험 중수익 자산배분 펀드 특성에 맞게 꾸준한 성과도 내고 있다. 신한펀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동 펀드(Ce클래스 기준)의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15.2%, 12.37%, 35.13%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두나무, 26억 피해자산 동결… 추적·회수 속도낸다

업비트 해킹 사태

글로벌 협력 요청… “안전 생태계 조성”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6억원의 피해자산을 동결했다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지갑에서 비정상적인 출금행위가 탐지되자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갑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

안을 강화했다. 또한 출금된 고객 자산 386억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활용해 외부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적인 자산이 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비트 자산 추적팀은 OTS 기반의 24시간 정밀 모니터링을 가동해 출금된

디지털자산의 온체인 이동 경로와 관련 주소를 확보했다. 이후 업비트는 해당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전세계 거래소 등에 제공해 해당 주소에서 피해자산이 입금될 시 동결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당일 출금 후 5시간 만에 23억원의 피해자산을 동결했고, 추가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동결했다. 업비트는 동결 자산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회수율을 높이

기 위해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회수 기여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피해자산의 추적 및 동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는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회수 기여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피해자산은 업비트 자산으로 이미 모두 총당했지만, 공격자에게 자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추적하고 동결하고 있다”며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I 학습,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기업혁신·시장경쟁 활성화 추진

공정위,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개인정보 가명 없이 AI 활용 가능
자율주행·음성·영상 정확도 향상
개인 캠핑카 공유 플랫폼 등 허용
주류시장 경쟁촉진·행정부담 완화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
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
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가 허용되
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
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공익·상업적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얼굴·목소리·보행 패턴 등 원본 특성을 그대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기술 분야에서 가명처리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기술은 미세한 시선 처리나 돌발 행동을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가명처리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일반인이 보유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 대여에 필요한 기존 '50대 이상 보유' 등 과도한 등록기준을 손질해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혜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

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 경직된 시장구조도 손질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기반 사업이지만 최근 신규 발급이 연 0~1건에 그쳐 시장경쟁 약화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주류 소비량 산식을 '평균값→큰 값' 방식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도 2배 확대해 주정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주업체의 허용량은 연 3만 드림 수준(전체의 약 2%)에 묶여 있었다. 정부는 이를 4~6만 드림까지 상향, 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향후 기재부·국세청과 협업체 주류시장의 추가 구조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과점의 '주요 3개 원료 표시' 기준도 업계 특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행정·운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시장경쟁을 저해해 온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 선발

건설근로자공제회·협성문화재단 협력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이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두 기관은 2011년부터 협업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등록금 전액과 학습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 가운데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 2025년도 근로내역 10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자녀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20명을 선발한다. 제출서류와 세부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협성문화재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

표되며, 면접은 2월 2~6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장학생은 매 학기 일정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핵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성장동력·경영구조·고객신뢰 재정비”

농어촌공사, 117주년 KRC 혁신 선언

한국농어촌공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공사의 영문명칭)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농어촌공사는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RC 비전데이'를 열고 경영혁신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국정과제와 경영현황을 토대로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공사는 혁신 전담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 전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김 사장은 새 비전과 변화 방향을 담은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행사는 미래세대 비전과 조직 변화 비전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청년세대로 구성된 '청년 이사회'가 미래 관점에서 본 공사의 역할을 제시했고, 2부에서는 김 사장이 직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8일 창립 117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접 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하며 전사적 동참을 독려했다. 청년이사회는 올해부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구다.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재충전은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확장을 목표로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6개월 연속 감소

노동부 '고용행정 통계 동향' 발표
구인배수 0.43, 11월기준 최저 기록
1~11월 실업급여 11조 '사상 최대치'

제조업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6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상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3만4000명 줄었고, 전년 동월 증가폭도 17만8000명에 그쳐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7월(18만명)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뒤 8월 반등했지만, 11월 다시 축소됐다.

노동부는 연말 계약직 종료 영향으로 상시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초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6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 역시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 ▲10월 1만4000명 ▲11월 1만6000명으로 매달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국인만 따로 보면 제조업 고용 감소는 2023년 10월 이후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국인 가입자가 3만1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인 1만5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줄며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9만2000명 줄어 39개월째 감소했고, 40대도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50대(4만2000명), 30대(7만8000명)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업의 인력수요를 구직인원

으로 나눈 값인 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11월(0.46)보다 낮아졌다. 이는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11월 기록이다. 기업 구인인원은 전년 대비 8000명(-4.6%) 줄고 구직자는 1만2000명(3.3%) 늘면서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 영향이다. 다만 노동부는 구인배수가 '고용24' 플랫폼 기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에 제조업 구인이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보니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19억원 증가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지급액만 보면 7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원(-6.0%)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8만4000명)와 전체 지급자(52만8000명)는 각각 6000명(-6.4%), 1만5000명(-2.7%)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광주시, ‘AI 3대 강국’ 실현 박차… 국가 AX 혁신거점 조성

〈인공지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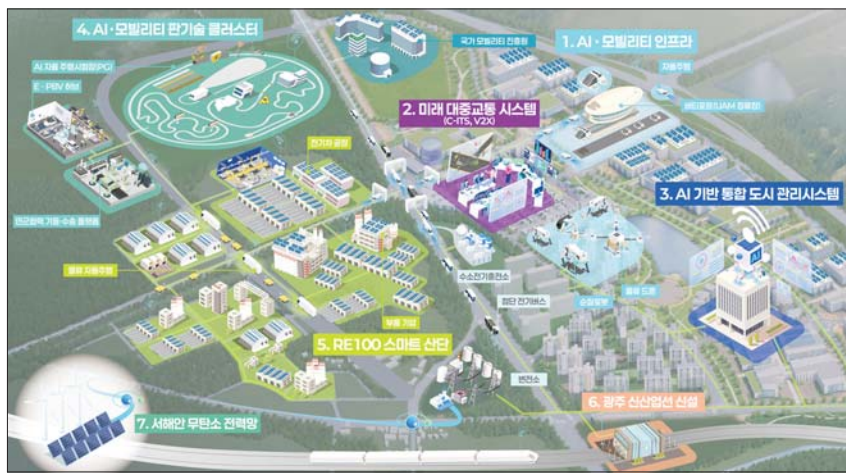
내년도 AI 예산 1634억 투입
AI 기반시설·컴퓨팅 자원 확충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모델 추진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인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거점 광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3조9497억원 중 AI 예산 1634억원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기술 실증,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8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에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산 NPU의 실증·활용을 위한 공공형 컴퓨팅센터를 조성하고 범용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해 NPU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192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구축돼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산업계·학계 등이 인공지능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광주 인공지능·모빌리티 융합 시범도시.

/광주시청

확충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의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전환(AX)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으로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도시 전역을 인공지능 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모델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마중물 예산 5억원을 활용해 기존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를 산업·서비스 단위에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규모 실증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297억원도 확보했다.

국산 NPU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22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60억원)도 구축한다.

인공지능과 미래차(모빌리티)가 결합한 도시 구축을 위한 ‘미래도시모델 조성 계획’ (10억원)을 수립하고 6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단위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AI특화병원 조성에 3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의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실증연구지원센터 구축(16억원) 사업도 본격화 한다.

의료·바이오·부티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AI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조성(25억원), AI 부티기기 기술 고도화(10억원) 등도 진행된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에 ‘소프트웨어(SW)마에스트로’를 도입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예산도 31억원을 반영하여 인재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대조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국산 반도체(NPU), 최첨단 자율주행, AI병원 등 국가 인공지능 핵심 전략을 최초로 실증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정교한 사업 기획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中 후난성과 연대관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형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시찰하고, 분석 결과를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정훈 기자

울산의대, 본교 중심 교육체제 구축

설립 37년 만에 울산서 의대 교육
내년까지 교수연구실 등 추가 구축

울산의대가 설립 37년 만에 울산 본교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달 해부학 실습실 등 핵심 교육 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울산에서 본격적인 의대 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부속병원 부재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오던 울산의대가 비로소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됐다.

시와 울산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의대의 본교 중심 교육을 목표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울산대는 울산 본교 중심 교육을 위한 입시요강과 교육 체계

정비가 이뤄졌다. 지난 2023년에는 의대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동구 전하동(구)한마음화관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올해 3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의학관을 개관하고, 교육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단계별 계획이 완료됐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의 안정적인 정착과 연구를 위해 교수연구실과 연구공간을 내년 3월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울산대와 ‘지역 의료와 울산의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료 연구 역량 강화, 의료·생명과학(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미래 의료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이 청년 식품기업 대표 및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북도, K-푸드 청년기업 지원방안 논의

청년식품창업센터서 현장 목소리 들어

정부와 전북도가 손잡고 청년식품기업을 K-푸드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증류소’, ‘다격’, ‘비응도등대’ 등으로, 각 사 대표들이 직접 자사 제품과 성장 과정,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술지원, 시험분석, 패키지 제작,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제 제품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제품개발과 수출 확대 과정에서 청년 대표들은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했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영덕 고래불역’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동해중부선 철도관광 활성화

경북도가 동해중부선의 영덕 고래불역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곳에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플리마켓,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젊은 세대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체류형 문화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동해중부선 관광 특화 철도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 동해안의 철도역을 관광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

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잇는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해안권 신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5일에는 고래불역에서 ‘고래불역 관광거점화’ 시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고래불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영덕군, 경북문화관광공사, 코레일 대구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하동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천연물 기반 식품소재 연구·사업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동군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육성지구 지정이다.

이로써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축산업·식품 분야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거점이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조성된다. 하동군의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천연물 기반 식품 소재 연구 실증

과 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하동군은 육성지구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3대 연계축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선도기업·청년 참여 기업·생산자 간 협업 기반의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동 가공·물류·기술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R&D 및 가능성 소재화와 혁신벨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선정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참여 기업 자부담 2억원을 더해 총 6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노후한 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를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복지·근로환경·외관·녹지 4개 분야 중심의 맞춤형 개선이 진행되며 총 10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경주·울산

해오름동맹 생활체육 대축전

포항·경주·울산시의 해오름동맹이 지난 7일 경주체육관에서 ‘2025 해오름동맹 생활체육 대축전’을 열고 상생·화합을 다졌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 시민 500명이 참가한 이날 대축전에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3개 도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체육회장과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3개 도시의 상생·화합의지를 확인했다.

명량 운동회 및 시별 대항으로 시의원 족구대회,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 체육 경기가 열렸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가 동해남부권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결성한 협력체로, 경제·산업·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김진곤 기자

유통업계, ‘놀이형 소비’ 주목… 캘린더 등 한정판 경험 혁신

오리온 어드벤처 캘린더 2종 선봬
스타벅스 ‘월리를 찾아라’ 프로모션
투썸 ‘헤네시 X.O 케이크’ 한정판매

연말을 맞아 MZ세대가 ‘뜯고 자랑하는 재미’를 앞세운 소비에 열광하면서 유통-카페업계가 앞다퉈 놀이형 한정판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다. 명품 브랜드의 고가 어드벤처 캘린더(Advent Calendar)가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가 하면, 카페업계는 인기 캐릭터·주류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으로 SNS 화제를 노리는 모습이다.

연말 한정판 아이템의 대표주자인 ‘어드벤처 캘린더’가 올해 MZ세대 사이에서 본격적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어드벤처 캘린더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하나씩 칸을 열어 작은 선물을 확인하는 달력 형태의 제품으로, 본래 명품업계에서 VIP 고객에게 증정되던 프리미엄 굿즈다.

어드벤처 캘린더 열풍은 단순한 ‘달력 상품’의 인기를 넘어 MZ세대의 소비 방식을 정교하게 관통한다. 매일 하나씩 선물을 여는 구조가 기대감과 보상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괴정의 재미’를 중시하는 경험 소비 성향을 충족시키고, 화려



스타벅스 모델들이 겨울 프로모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한 패키지와 랜덤 구성은 SNS 언박싱 콘텐츠에 최적화돼 확산 속도를 높인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캘린더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디올의 ‘30 몽테뉴 어드벤처 캘린더’(99만 원), 생로랑의 650만 원대 캘린더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가심비를 자극하고 매년 달라지는 디자인과 한정판 요소는 FOMO(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를 유발해 수집 욕구를 키운다. 여기에 브랜드 취향을 드러내는 자아 표현 욕구, 팬덤 소비와의 결합, ‘연말엔 나에게 주는 선물’ 문

화까지 맞물리며 어드벤처 캘린더는 2030세대의 대표적 연말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제과업계도 어드벤처 캘린더를 결합한 제품을 속속 선보였다.

오리온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문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선물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어드벤처 캘린더’와 ‘오리온 어드벤처 캘린더’를 선보였다. 해태제과도 크리스마스를 향해가는 15일 동안 매일 한 칸씩 열며 맛있는 과자를 즐기는 연말 시즌 에디션을 내놨다. 15개 칸에는 해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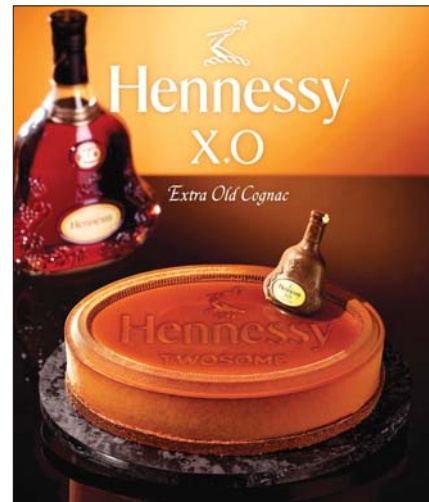


오리온 2025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캘린더, 과자 선물세트 제품. /오리온

포 간식들로 채워져 연말 선물로도 제격이다.

이같은 ‘연말 언박싱 열풍’은 카페업계의 협업 마케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Z세대 인기 캐릭터 ‘가나디’와 협업해 홀케이크를 출시했고, 스타벅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글로벌 IP ‘월리를 찾아라’와 협업한 겨울 음료와 굿즈를 선보였다. 이디야커피는 디즈니 IP ‘톰과 제리’와 영화 개봉 연동 이벤트를 진행하며 10·20대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세계적 코냐 브랜드



‘헤네시 X.O 케이크’ /투썸플레이스

헤네시와 손잡고 ‘헤네시 X.O 케이크’를 한정 예약 판매하며 성인 소비자의 연말 선물 수요까지 겨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드벤처 캘린더와 캐릭터·명품 협업은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SNS에서 보여줄 만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MZ세대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며 “연말 시즌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면서, 언박싱·굿즈·컬래버가 결합된 놀이형 소비가 업계 전반의 핵심 마케팅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웰케어, 약국 전용 전기식 상품 선보인다

바로팜과 약국 유통협력 MOU 체결
15일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 출시

CJ제일제당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독립법인인 CJ웰케어가 지난 5일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바로팜과 약국 유통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웰케어는 바로팜의 전국 약국 유통망을 기반으로 약국 채널에 처음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중심의 브랜드 전문성을 약국 시장에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J웰케어는 이번 협약으로 약국 전용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유통 기반을 확보했다. 협약대상 제품은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 단일 제품으로 CJ웰케어 전체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와는 별도로 약국 전용으로 기획됐다. 전국 약국의 90% 이상을 커버하



바로팜 김슬기 대표(왼쪽)와 CJ웰케어 윤상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CJ웰케어

는 유통망을 보유한 바로팜은 해당 제품의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 이후 CJ웰케어는 오는 15일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을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김치에서 유래한 CJ웰케어의 핵심 균주 CJLP133과 대장 정착력이 높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 BI9988를 조합해 균주 안정성과 과학적 가능성을 강화

한 것이 특징이다.

CJ웰케어 관계자는 “약국 고객에게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의 고품질·고품질 가치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약국 시장에서 CJ웰케어의 프로바이오틱스 전문성과 고객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잠실점 알로매장 오픈

롯데백화점이 지난 5일 잠실점 본관 1층에 프리미엄 글로벌 브랜드 알로(ALO) 매장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잠실점 알로는 약 280㎡(85평) 규모로 유통사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남녀 모두를 위한 토탈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매장으로, 알로의 핵심 철학인 스튜디오 투 스트리트를 바탕으로 공간을 조성했다. 요가복, 스포츠 브라 등 액티브 웨어 뿐만 아니라 스위트셔츠, 원피스, 언더웨어, 슈즈,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CJ더마켓, ‘더 세일 페스타’ 행사

홈파티용품 등 최대 75% 할인

CJ제일제당이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에서 오는 10일까지 ‘더 세일 페스타(이하 더세페)’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월간 행사 ‘더세페’는 연말을 앞두고 더욱 풍성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로 구성됐다. ‘홈파티’, ‘식단관리템’, ‘겨울 간식템’ 등 매일 다양한 테마에 맞는 각기 다른 특가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햇반 윤기가득쌀밥’, ‘비비고 베이직 포기배추김치’, ‘비비고 왕교자’ 등 2025년을 빛낸 BEST 스테디셀러 제품들은 최대 59%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할인 쿠폰 혜택도 크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발급되는 장바구니 쿠폰을 통해 최대 15%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첫 구매 고객에게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14일까지 ‘뷰티 쓱세일’ 진행

럭셔리 뷰티 브랜드 상품 단독 구성

SSG닷컴이 오는 14일까지 뷰티 쓱세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SG닷컴은 연말 선물 수요에 맞춰 주요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단독 구성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쥘랑과 프라다뷰티의 홀리데이 세트, SK-II 대용량 에센스 세트, 크리닉 쏘보습크림, 쉘37 시크릿 에센스 기획세트 등 다양한 단독 상품을 준비했다.

브랜드별 전용 혜택도 확대했다. 록시땅 홀리데이 기프트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하며, 딥티크와 바이레도 홀리데이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체형용 향수 및 상품권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12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타임딜을 진행한다. 입생로랑 쿠션세트, 키엘 홀리데이 에디션, 에스티 로더 갈색병 세트, 센텔리안24 마데카르립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한정수량 특가로 판매한다.

라이브 방송도 총 4회 진행된다. 8일 조 말론 런던을 시작으로 톰 포드 뷰티, 에스트라, 설화수 등 인기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할인 쿠폰 및 카드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신세계몰과 신세계백화점몰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발급하며, 행사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가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진로 ‘두꺼비 흠술포차’ 안주 5종 출시

하이트진로 이마트 노브랜드 협업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진로’가 ‘이마트 노브랜드(No Brand)’와 협업을 통해 ‘두꺼비 흠술포차’ 안주류 5종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진로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리빙 분야의 브랜드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노브랜드는 연말 시즌을 맞아 흠술, 흠파티족들을 위해 가성비 안주들을 중심으로 ‘두꺼비 흠술포차’를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협업 안주류에 진로의 두꺼비 이미지를 더해 귀여운 디자인으로 구매 욕구를 높였다. 협업 상품은 5종 ▲볼오징어스낵, ▲



진로X노브랜드 흠술 안주 5종. /하이트진로

직화무뼈불닭밥, ▲당면쫄쫄묵당, ▲칼칼포차우동, ▲양파감자전믹스의 소비자 가격은 1~4천원대로 출시돼 뛰어난 가성비가 특징이다.

진로 X 노브랜드 안주류는 전국 250여개 노브랜드 전문점에서 판매 중이며, 이마트, SSG에서는 11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제약바이오, K-에스테틱 열풍에 글로벌 미용의료기기 공략

해외 현지 맞춤형 전략 강화

클래시스 브라질 인수로 성장 가속
제이시스 멕시코·인도·UAE 공략
원텍 태국·튀르키예 인증 확대

‘K에스테틱’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국내 미용의료기기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클래시스는 호실적을 달성하며 해외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다.

클래시스는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2434억원, 누적 영업이익 1194억원을 올렸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38% 커졌다. 또 누적 매출은 지난해 연간 매출 2429억원을 넘어섰다. 앞서도 2023년 1000억원대, 2024년 2000억원대에 진입하며 매년 외형 확대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해외 매출 규모는 전체의 약 64%에 달한다. 클래시스는 최근 브라질 등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브라질법인을 통해 남미 최대 미용의료기기 유통그룹 JL 헬스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JL 헬스의 고객 접점 시스템, 마케팅 노하우 등을 도입해 브라질법인의 지역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클래시스 측은 “현재 브라질 사업이 글로벌 매출 가운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외국인 환자가 피부 및 성형 의료상담을 받는 이미지.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시스메디칼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했다. 멕시코에서는 고주파 미용의료기기 ‘덴서티’, 초음파 의료기기 ‘리니어지’ 등을 공식 공개하며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인도에서는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뭄바이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덴서티를 내놨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덴서티를 선보이며 중동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일본법인, 호주법인, 베트남법인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매출 1921억원에서 70% 이상을 해외에서 거뒀다.

원텍도 글로벌 중심 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원텍은 지난 5일 튀르키예와 태국에서 각각 피부용 레이저 의료기기 ‘라비앙’과 ‘브이 레이저’의 품목허가를 잇달아 획득했다. 또 태국에서는 단극성(모노폴라) 고주파 의료기기 ‘올리 지오X’ 300대 선주문을 기록했다.

원텍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총 8건, 영국과 호주에서는 총 7건의 미용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제품 개발부터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별 소비자 특성, 시술 선호도, 뷰티 유행, 의료기기 규제 요건 등을 철저히 분석 및 반영한 성과다.

원텍은 “해외시장 성장세와 투자 여력이 크다고 전망해 시장별 신제품을 확

장하는 등 안정적 수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 올해 4분기에는 주요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텍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1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당기순 이익은 91% 급증했다.

국내 미용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에 힘입어 ‘K에스테틱’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K의료관광까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의료소비액이 올해 7월에 누적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9월 누적 1조4285억원으로 급증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가 56%로 가장 많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1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업계 일각에선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최신 유행이 K에스테틱으로 확산되면서 미용의료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에 발맞춰 글로벌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지속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협력 강화

글로벌 전략·R&D 연계 확대

SK바이오팜은 5~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뇌전증학회(AES) 2025’ 기간 중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과 ‘메디컬 얼라이언스 미팅’을 연달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올해 두 행사를 연속 개최한 것은 세노바메이트의 상업·메디컬 전략을 전 주기 관점에서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사업·메디컬 협력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SK바이오팜은 지역별 상업화 경험과 임상·의학 데이터를 통합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하며, 글로벌 전략 실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강화했다.

첫날 열린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에는 SK바이오팜 유창호 전략 부문장을 비롯해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 주요 관계자, 유럽의 안젤리니 파마, 일본의 오노약품공업, 캐나다의 나이트 테라퓨틱스 등 전 세계 7개 주요 파트너사까지 총 5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세경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내 첫 ‘비동물시험 인증기관’ 선정

AFI, 심사 거쳐 비동물시험 기관 지정 오가노이드 평가로 피부·장 개선 검증

사단법인 애니멀프라이니셔티브(AFI)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국내 최초 ‘비동물 시험법(NAMs) 인증 시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NAMs 인증은 동물실험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경우 부여되는 제도로, AFI는 기술 신뢰도·데이터 품질·윤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가노이드사

이언스를 첫 공식 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

AFI는 또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수행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식품·간식 브랜드 로렌츠(Lorenz)의 일부 제품을 국내 첫 ‘반려동물 NAMs 인증 제품’으로 등록했다. 이는 기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부족했던 장기간 사용·반복 노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과학적·윤리적 검증 체계를 확립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 및 반려

동물의 생체 환경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로렌츠 제품군을 평가했다. 귀 세정 패드 ‘풀애포드’는 고농도 처리에서도 피부 독성과 자극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적 사용에도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건강 보조제 ‘원데이스틱’은 장 상피세포 부착률과 장벽 회복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반려동물 간식 ‘로렌츠스틱’ 역시 장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에서 장 기능 강화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제품은 명확한 안전성 기준이 부족해 장기 섭취나 반복 노출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NAMs 인증 도입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NAMs 시험을 주도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김현문 팀장은 “국내 최초 NAMs 시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대체시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에이솔루션 X 꽃카 '컬래버 에디션' /애경산업

애경산업 ‘에이솔루션’

꽃카 컬래버 제품 선택

진정 케어 라인업과 비건 인증 적용

‘에이솔루션’ (a solution)이 무해한 힐링 캐릭터 ‘꽃카’ (Kkotka)와 협업을 통해 1020 잘파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에이솔루션X 꽃카 컬래버 에디션’을 출시했다.

에이솔루션 X 꽃카 컬래버 에디션은 ▲피지를 줄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 주는 ‘클렌징 폼’ ‘토너’ ‘토너패드’ ▲칼라민 성분을 추가해 집중 케어 단계에 적합한 ‘스팟’ ‘세럼’ ‘크림’ ‘팩’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트러플 스팟 패치’ ▲빠르게 피지와 모공을 관리하는 ‘3분 수분 진정 클레이 팩’ 등으로 구성됐다.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처방을 적용해 한국 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에이솔루션 브랜드 담당자는 “에이솔루션은 잘파세대가 겪는 대표적인 피부 고민에 맞춰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감성 트렌드를 적용한 브랜드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GC, 베트남에 AI 기반 정밀검진센터 열어

조기검진 수요 맞춰 암·생활질환 분석

GC(녹십자홀딩스)는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GC측은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이번 헬스케어 센터 개소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으며,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또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차트 없는 시스템(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AI 신약후보 국가과제 채택

신규 기전 선도물질 최적화 착수

JW중외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로 발굴한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R&D 생태계 구축 연구(후보물질)’ 과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JWWave를 활용해 구조 기반 모델 고도화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유효물질(hit)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기전의 선도물질을 확보했다. 해당 물질은 현재 후보물질 단계에서 최적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회사는 24개월간 연구

비를 지원받아 비임상 진입을 위한 선도물질 구조 최적화, 기전 연구, 예비 독성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선도물질은 기존 대사질환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신규 기전을 갖춘 경구용 First-in-Class 후보물질로, 향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기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영역에서 혁신신약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AI 기반 신약연구 통합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를 통해 신약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세경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김여진 표혜미 | 엄승윤 류하륜 김상민 최윤재 | 지강혁 엄정욱 한재우 김도경 | 현지수 한혜란 이정원 김정은 | 임영식 강동철 공민규 김한길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교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소진공, ‘韓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오른쪽)가 산업부 김태희 유통물류과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한화,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김장김치 나눔**

한화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 임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김장 재료 준비, 버무림, 포장, 배달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은 총 1000kg의 김장김치를 종로구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 /한화

**이랜드월드, 물류센터 화재 지역주민 건강회복 지원**

이랜드월드가 천안 물류센터 화재로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지난 5일부터 주말 동안 주민 건강 지원 물품 4500세트를 순차적으로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물품 세트는 호흡기 보호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종합비타민, 고타랑 비타민C, 레몬 생강청, 배도라지청 등으로 구성됐다. /이랜드

**케이뱅크, ‘금융권 합동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임직원 30여명이 ‘금융권 합동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연탄과 난방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물품 패키지 등을 홍제동 개미마을 취약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B인재양성’ 수료식 성료**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인재양성’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KB인재양성은 KB국민은행 대표사회공헌사업 ‘KB 드림 웨이브(Dream Wave) 2030’의 일환으로 꿈과 도전정신이 있는 미래인재를 선발해 전문가 멘토링 및 성장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

‘창립 80주년’ 기아,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개

**‘기아 트레저 헌트’ 캠페인 진행
80년 역사 관련 각종 자산 수집
헤리티지 유산으로 보존 계획**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Kia Treasure Hunt):80년의 유산을 찾아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아의 80년 역사와 관련된 각종 자산을 수집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기아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유한 자산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기아가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Kia Treasure Hunt)’를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초기형 모델·콘셉트카 등 차량 및 부품 ▲오래된 책자·기사·메모 등 문서 및 기록 자료 ▲역대 엠블럼과

로고·스케치·설계 도면 등 디자인 및 브랜드 자료를 포함해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철강협회, ‘철강사진 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 포함 22점 수상작 발표

한국철강협회 철강홍보위원회는 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5 철강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22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1999년 시작돼 2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참여형 방식으로 접수를 전환했다. ‘철의 가치, 철과 같이’를 주제로 일상 속 철강의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약 2개월간 총 1437점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심사는 업체수·윤현기 사진작가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술성과 주제 적합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송민서 씨의 ‘구조 훈련’이 선정됐다.

수상작 ‘구조 훈련’은 여러 개의 철제 비너(로프를 걸거나 연결하는 금속 고리)와 로프가 구조 현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하는 모습을 포



최우수상 ‘구조 훈련’(송민서),/한국철강협회

착했다. 작은 철제 고리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시키며 구조 훈련에 나선 대원들의 표정과 함께 철이 우리의 안전과 일상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쓰이는 철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며 “철강 구조물과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나누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철과 인간이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탱하는 따뜻한 상생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대웅제약,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품 전달

총 5000세트 지원

대웅제약은 경북 산불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경북도청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긴급 구호 물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쳐 진행됐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약 5000개, 공산품 1만여 개, 건강기능식품 약 5000개 등 총 5000세트의 구호 물품을 각 지역 임시 조립주택 거주자에 게 전달했다. 수혜 대상은 약 4200명

으로, 이들 대부분은 산불 발생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본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사회적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3월에도 경북약사회와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3000여 개의 의약품 및 의약품품을 기부한 바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대표는 “장기화되는 피해 복구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분들의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조직문화 우수 인증

가족친화 기업 등 7건 수상·인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한층 더 거듭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가족친화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오면서, 올해 정부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총 7건의 조직문화 우수기업 관련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노사 발전재단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달에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연장받았다. 이번 인증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육아·돌봄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도 고도화 등 시스템을 보완하며

기아 내부 평가위원단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은 기증 또는 대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기아의 소중한 헤리티지 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보존 대상 선정 자산을 등록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전문가나 소장가만이 아닌 기아와 인연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브랜드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며 “한국 산업사의 의미 있는 장을 함께 완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아는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있는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김민숙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가속친화 기업 등 7건 수상·인증

운영 성과를 높여 온 결과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근로자의날 유공 포상(5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5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7월),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9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11월)에 이어, 이번에 두 건의 추가 인증을 더하며 올해 총 7건의 조직문화 우수기업 관련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 강대성 상무는 “당사가 달성한 수상 및 인증은 임직원의 업무 성과 및 조직 몰입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느껴며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양 1963’ 출시 한 달 700만개 판매

프리미엄 국물라면 시장 변화 예고

삼양식품이 출시한 신제품 ‘삼양 1963’ (사진)이 국내 프리미엄 국물라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8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삼양 1963’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기존 삼양라면(오리지날)의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80%를 넘는 수치다.

‘삼양1963’의 소비자 가격이 기존 삼양라면에 비해 약 1.5배 비싼 프리미엄 라면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매 성과다.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보여준 결과이자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

한 성과로 해석된다.

‘삼양1963’은 과거 삼양라면 제조의 핵심이었던 ‘우지’ 유탕처리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동물성 기름 우지와 식물성 기름 팜유를 황금 비율로 혼합한 골든블렌드 오일을 사용해 면을 튀겨냈다. 이를 통해 면의 고소함과 감칠맛을 강화했고 액상스프와 후첨 & 분말후레이크를 적용해 원재료의 풍미를 더욱 살렸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인사

◆HL그룹 <승진> ◇사장△HL만도 박영문 사장(중국 지역 대표) △HL클레무브 이윤행 사장(CEO) ◇부사장△HL만도 정재영 수석부사장 △HL홀딩스 지주부문 강한신 부사장 △HL만도 김문성 부사장 △김재혁 부사장 △김현욱 부사장 △이정석 부사장 △이철 부사장 △홍영일 부사장 △HL디앤아이한라 이용주 부사장

부음

▲한만청(전 서울대병원장)씨 별세, 김봉애씨 남편상, 한숙현·한금현·한지현씨 부친상, 조규완(이화산업(주) 회장)·백상익(풍원산업(주) 대표)·장재훈(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씨 장인상 = 8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 1호실(8일 오후 5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10일 오전 7시 02-2072-2091

압력이 만든 간편식의 맛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한국의 간편식 시장은 작년 기준 5조 원을 넘어섰고, 레토르트 간편식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늘 한가지 난제를 갖고 있다.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고온으로 살균하기 때문에 신선함은 사라지고 풍미와 조직이 무너진다. 한식의 탕류처럼 단맛, 감칠맛, 육향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제품은 열처리로 인한 단점을 피해 가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최근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듯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에 바로 고압살균(HPP) 기술이 있다. 고온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분자구조는 몇 분 안에 쉽게 변성되고 지방의 미세한 풍미 성분은 소실된다. 심한 경우 고기의 육질이 물러 지거나 양념의 균형이 깨져 집에서 만든 맛과 다르게 된다.

간편식 시장이 확대될수록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그와 비례해서

상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살균은 뜨겁게 가열해서 유해균을 없애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압살균은 가열 대신 600MPa(메가파스칼) 안팎의 강한 압력을 식품에 균일하게 전달하여 미생물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이다. 해양 최대 수심이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약 11km라고 하는데 600MPa 압력은 60km 수심에 해당한다.

고압살균은 야채나 고기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고온으로 가열 처리하는 방법처럼 단백질을 과도하게 변형시키지도 않는다. 유해한 세균의 세포막을 고압으로 수축시켜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가 간편식의 품질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열처리 방식에서는 고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빠르게 굳는다. 반면 압력 처리는 수분 유지력을 지키기 때문에 조리했을 때 촉촉함이 남는다. 핵산계 조미성분, 아미노산, 지방등 휘발성 향미물질은 비교적 열에 약한데, 고압살균은 이를 해치지 않는다. 덕분에 집에서 바로 볶은 맛과 유사한 풍미 프로파일이 유지된다.

양념은 단맛, 염도, 산도가 미세하게 균형 잡혀야 한다. 고압은 이러한 조합을 흔들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양념의 깊이와 조화가 그대로 살아나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간다. 고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어 클린라벨 설계가 가능해진다.

고온에서 처리한 음식에서 많이 생성되는 최종당화산물(AGEs)의 생성을 감소할 수 있고 고열처리 식품에서 기인하는 마이아르 반응 결과 부산물의 생성이 적다. 이는 염증이나 노화의 지표 증가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가 된다. 압력은 지방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화과정의 스트레스가 적다. 양념의 당질 구조가 덜 파괴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고압살균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프리미엄 간편식 영역에서 눈에 띄고 있다. NFC 착즙 음료, 콜드브루 커피, 전골, 비빔밥, 볶음요리, 샌드위치, 도시락 등 활용도가 점차 넓어져 1~2인 가구에서 재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다. 가열의 한계를 넘어선 푸드테크 기술은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열은 빠고 압력이 만든 변화가 식탁 위의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푸드테크ライター, 식품기술사

‘운전대 없는 바다’ 오는데, 제도는 아직 제자리



기지 수첩

유 해 온
(산업부)

바다 위에도 운전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군은 무인수상정과 자율형 함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해운사는 안전 확보와 연료비 절감을 내세워 자율운항 기술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규범과 제도 정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율운항 선박의 축은 크게 두 갈래다. 사람이 타지 않는 군용 무인수상정과 선원이 승선하되 주요 의사결정을 시스템이 대신하는 자율운항 상선이다. 대형 상선은 완전 무인선이 아니라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항로 결정과 충돌 회피 등 상당 부분을 자율 시스템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상선 쪽이다. 군용 함정은 공해상에서 국제 규범을 직

접 적용받지 않지만 상선은 IMO(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IMO가 논의 중인 'MASS(자율운항선박 규정)'가 정비되지 않으면 완전한 의미의 자율운항 상선은 공해상 운항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가 기술 상용화의 최종 관문이 되는 것이다.

기술적 과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자율운항 선박은 레이더, AIS(자율식별장치), 위성통신 등 각종 장비와 네트워크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과정이 해킹에 노출될 경우 선박의 위치·항로·제어권이 통제로 위협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해상 데이터도 충분치 않다. 자율화로 인한 선원 일자리, 역할 변화, 근로 조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자율운항이라는 흐름 자체는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선박 사고의 상당 부분이 인적 과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해운사들이 자율운항 도입 시 첫 번째 목표로 꼽는 것도 안전이다. 여기에 선원 부족 문제, 인건비와 연료비 절감을 위한 최적 항로 탐색까지 더해지면 자율운항은 선택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된다.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 국제 규범과 국내 제도가 기술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이 여전히 많다. 군 함정 분야에서 쌓아온 자율화 경험과 기술을 상선·상업용 선박으로 어떻게 이전·확산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도 뚜렷하지 않다.

자율운항 선박 관련 IMO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해킹과 통신 교란에 대응할 사이버 보안 체계도 선박 설계 단계부터 기본값처럼 녹여 넣어야 한다. 대학·연구기관·해운사·조선소가 함께 참여하는 해상 데이터 생태계 구축 역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dhalehdhal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9일 (음 10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여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48년생 숫자 7이 행운을 준다. 60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며 산다. 7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4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보통은 유리.



소

37년생 결과가 좋으니 모든 것이 편하다. 49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1년생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 73년생 마음은 있으나 데이트비용이 문제. 85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니 절망은 금물.



호랑이

38년생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팔 난다. 50년생 성공이 끝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62년생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과가. 74년생 즐거움이 있으나 지출은 많이 발생. 86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뜬.



토끼

39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51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75년생 부모님들의 삶도 고단하다는 것을 알아라. 87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용

40년생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신용은 최선. 52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대를 받음. 6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76년생 이성의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88년생 현실은 쓴맛 단맛 다 보는 일.



뱀

41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울적. 53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65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복 받는다. 77년생 화창한 봄날 까치가 우니 소식이 오려나. 89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말

42년생 부러움을 많이 사는 날이나 실속은 적다. 5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푸르다. 66년생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78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기는데. 90년생 이제라도 기초를 세워야 후회하지 않는다.



양

43년생 회사는 전성기이지만 밖은 지옥이니 창업은 신중하게. 55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 67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 79년생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협업으로. 91년생 익숙한 일도 실수를 하게 된다.



원숭이

44년생 최선을 다하니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56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이지 마라. 68년생 겹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80년생 자제된 내막을 알 때까지는 결정하지 말도록. 92년생 상냥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닭

45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57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하게 실력을 쌓아. 69년생 부모님의 자원이 감사할 뿐이다. 81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미래의 꿈을 버리지 마라. 93년생 두드러지도 않고서 포기하지 마라.



개

46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58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70년생 일이 많아지니 신명이 난다. 82년생 이직을 추진하는데 주변 도움으로 결과가 아주 좋다. 94년생 앞만 보고 달려가면 실패는 날.



돼지

4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59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면서. 71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83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95년생 미팅을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라.

김상회의四季

병법 원교근공



36계 병법 중 스물세 번째 계책은 원교근공이다. 원교근공은 '먼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라'는 뜻이다. 외교전략으로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이 계책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철학이다. 가까운 관계에 얽매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멀리 있는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라는 뜻이다. 명리학의 관점에서도 거리 설정은 중요한 화두다. 사주에서 비겁이 강한 사람은 형제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하기 쉽다. 식상이나 재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외부로의 확장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힌다. 원교근공 전략은 이와 비슷하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나와 직접 이해가 엇갈리지 않는 먼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라는 것이다. 인생에서의 원교근공은 가깝더라도 불필요한 관계라면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성이 과도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규범에 지나치게 얽매어 스스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거리두기 즉 원교근공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운세의 흐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내 시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전략적 거리 두기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나 환경에는 일정한 선을 긋고,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줄 먼 거리의 기회를 먼저 살핀다. 명리학의 중화처럼 조화로운 간격이 필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1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백호띠’ 고등학생 된다… 서울 일반고 지원자 4.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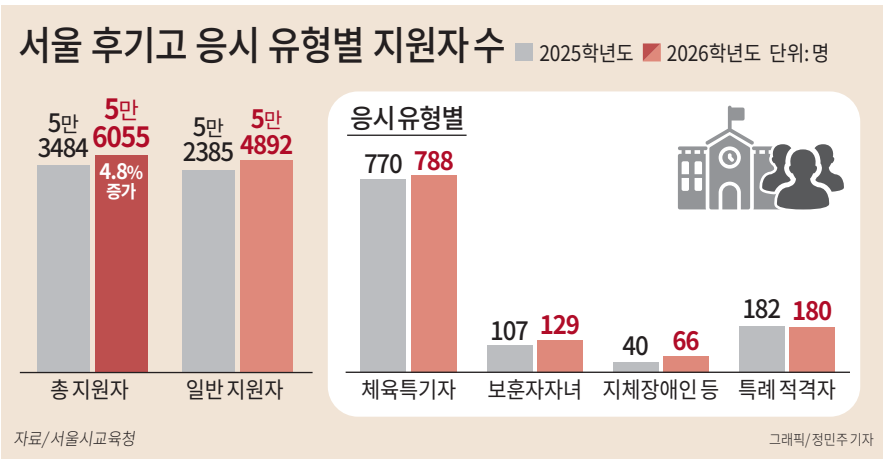
(전년대비)

서울 후기고 지원자 5만6055명
출산을 높았던 백호띠 입학 영향
외고·국제고·자사고 중복지원↓

2026학년도 서울 후기고 원서접수에서 ‘백호띠’ 학생의 고교 진학 시기가 맞물리며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외고·국제고·자사고 중복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8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배정 대상 학교는 총 212교로, 전년대비 2개교 늘



었다. 이번 변동에는 신설학교인 흑석고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광고가 포함됐다.

지원자는 5만6055명(남 2만9208명, 여

2만6847명)으로 전년 5만3484명보다 2571명(4.8%) 증가했다. 이는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2010년생 ‘백호띠’ 학생들이 고교 입학 시기에 도달하면서 지

원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에 중복 지원한 학생은 9843명으로, 전년 1만 509명 대비 666명(6.3%) 감소했다.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과 자사고 지원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복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 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대부분 유형에서 지원자가 늘었다. 일반지원자는 5만4892명으로 지난해보다 2507명 증가했고, 체육특기자는 788명으로 18명 늘었다. 보훈자 자녀는 129명으로 22명, 지체장애인 등 근거리통학 대상자는 66명으로 26명 증가했다.

반면 특례 적격자는 180명으로 전년

대비 2명 감소해 유일하게 소폭 줄었다. 선발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지원자·보훈자 자녀·지체장애인 등은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체육특기자와 특례 적격자는 중학교 성적과 관계 없이 선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7일에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9일 배정 학교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원서접수처에서 합격 여부와 배정 학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K-뷰티 베트남 진출기회 넓힌다

서울시,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과 협력
K-뷰티 체험관·상설매장 운영 추진

서울시가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과 협력하면서 서울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K-뷰티 체험관 운영과 상설매장 구축 등이 추진되며 현지 시장과의 접점도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SBA)은 5일 서울 소재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Vincom Retai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빈컴리테일은 하노이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Vincom Mega Mall Royal City) 등 매장을 거점으로 베트남 현지에 K-뷰티 상시 체험 기반을 제공해 서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K-뷰티 홍보·체험관 공동 기획과 운영 ▲전시·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뷰티·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기반 문화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5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 내에 마련된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 ‘비온드 더 뷰티, 비더비@DDP(Beyond the Beauty, B the B@DDP)’를 방문해 AR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미러로이드), AI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제품 추천(¶앙트러리얼리티) 등 서울 기업의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했다.

서울시는 이번 팝업 행사를 시작으로 해당 공간을 서울경제진흥원 뷰티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B the B’의 첫 글로벌 상설매장 ‘비더비@DDP’로 전환해 베트남 소비자와 K-뷰티를 연결하는 접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같은 날 하노이에서 열린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K-산업 확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고, 서울 기업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박사까지 6년만에… 통합과정 신설

8년 이상 걸리던 박사과정 단축
우수 연구인재 조기 확보 ‘속도’
교육부, AI 인재 패스트트랙 도입

고려대학교가 학사부터 박사까지 최대 6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석·박 통합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던 박사 과정이 크게 단축되면서 우수 연구 인재 조기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 신설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현재 심의 중이다.

학·석·박 통합연계 과정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 단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해 수업 연한을 압축하고, 연속적인 연구 훈련을 통해 학문·연구 역량을 심화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부 3년 6개월, 석·박사 2년 6개월을 거쳐 총 6년 안에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고려대는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3월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5월 첫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고려대 전경.

/고려대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첫 입학생이 대학원 과정에 진입하게 되며, 이번 통합연계 과정은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수 연구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려대는 장학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조기 졸업자의 경우 입학금과 첫 학기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2~5학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다. 다만 장학금 유지를 위해서는 매 학기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0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을 검토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학·석·박 연계형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 박사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우수 AI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해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 통합과정 근거를 규정하고, 최대 2년 6개월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학·석·박 통합과정은 가능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입학단계부터 학·석·박 과정으로 선발하는 통합과정, 학부 입학 후 학·석·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정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 제3연륙교 ‘걷기&달리기 대회’ 성료

개통 앞두고 총 4000여명 시민 참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걷기&달리기대회(WALK&RUN)’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2000명, 달리기 2000명 등 총 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코스를 걸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주 열린 전국 듀애슬론 대회에 이어 제3연륙교 상

부를 시민이 실제로 체험해보는 두 번째 행사로, 전문 경기 중심에서 시민 참여형 행사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연륙교를 일반 시민이 대규모로 걷고 뛰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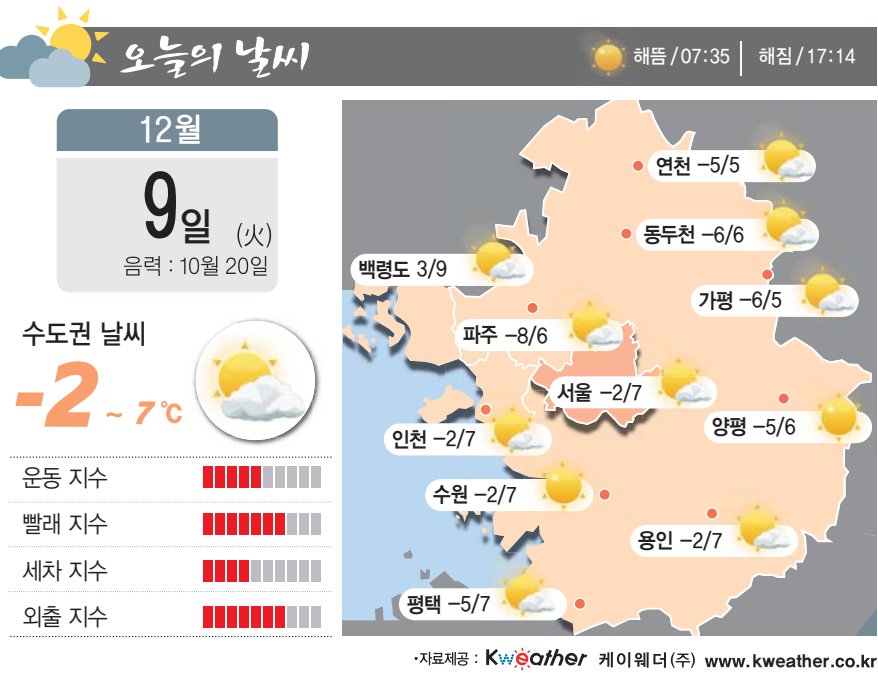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위에서 바다 전경과 184m 주탑, 청라호수공원과 삼백리 자전거길로 이어지는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했다. 가족 단위와 전 연령층 시민이 참여해 제3연륙교가 향후 생활형 여가·레저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가 “영종과 청라를 잇는 교량을 넘어 인천의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이라며, 시민 체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총연장 4.68km, 왕복 6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2026년 1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해상 전망대, 옛지워크, 친수공간 등 복합 관광시설이 도입될 예정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중재’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태국군 1명 사망
▲美, 이집트-이스라엘 정상회담 추진…“네타냐후, 가스 수출 승인해야”

/사진 뉴스시스

▲中日갈등, 군사대립으로 확산 양상…‘레이더 조준’ 책임공방 가열
▲日서 사상 최대 히로뽕 밀매…한국인 회사 임원 체포

▲넷플릭스 워너 인수에…트럼프 “문제 될 수 있어” 규제 개입 시사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업계
캘린더 등
놀이형 소비 마케팅
L1

metro®

Life

제약바이오
K-에스테틱 열풍에
미용의료기기 공략
L2



현장에 안전 로봇팔, 아이에겐 로봇친구... 기술이 전한 온기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작업환경과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협동로봇 전문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안전 중심 설계와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봇 기술 기반, 작업환경 안전 강화

두산로보틱스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협동 로봇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며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로봇으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은 모든 축에 고성능 토크센서가 탑재돼 충격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안전 기능을 갖췄다. 이러한 설계는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협동로봇이 작업자의 신체 충돌·끼임 사고를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안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등급 'PL e, Cat 4'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6축 토크센서 기반 정밀 제어 기술은 로봇 관절의 회전력과 힘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과도한 힘이나 예상치 못한 충돌 상황 발생 시 즉시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023년부터 SK에코플랜트와 협력해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다. 1200도에 달하는 고온 소각장에 로봇팔을 적용한 것이다. 1200도에 달하는 소각로에 의료폐기물을 투입하는 집 신기 작업을 협동로봇이 대신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열·유해물질 노출 위험을 없애고 소각 효율을 높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돕는 기술을 로봇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개의 팔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암 동시제어 기술', 다양한 환경에서 센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험을 낮추는 '충돌 회피기술', 로봇이 스스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롱-호라이즌 태스크 기술' 등 '지능형 로봇 솔루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의 모든 기술과 제품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

됐으며 로봇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사람은 안전하고 더욱 가치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진정한 의미의 인간-로봇 협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도 기증...급식 현장 환경 개선

로봇 기증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8월 대구 지역의 한 학교에 단체급식용 튀김로봇을 기증해 조리사들의 노동강도와 화상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해당 로봇은 두산로보틱스의 식음료(F&B) 협동로봇 파트너사인 977로보틱스가 공급한 솔루션으로 반복·고온 작업이 많은 급식 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단체급식 튀김 솔루션은 6개의 튀김용 바스켓을 동시해 가동할 수 있어 약 500인분 규모의 튀김 작업을 2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협동로봇이 튀김 솔루션 모듈 상단에 설치돼 기름 교체 및 바닥 청소가 편리하며 공간효율성이 높아 기존의 급식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협동로봇 기술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고성능 토크센서 탑재, 위험요소 파악 폐기물 처리 등 위험한 작업 대신 수행 근로자 고열·유해물질 노출 위험 줄여

두산로보틱스는 로봇 기증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단체급식용 튀김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조리종사자들의 조리용 노출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리용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온도 미세먼지로 튀김이나 볶음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된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조리종사자의 만족도뿐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까지 입증돼 향후 단체급식 튀김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교 단체급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속 고도화 하겠다"고 전했다.

◆협동로봇,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선사

두산로보틱스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협동로봇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로봇 기술을 접목한 봉사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023년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을 방문해 '협동로봇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교육용 키트를 활용해 협동로봇의 개념과 기본적인 작동 과정 등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한 뒤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기회를



- 1 두산로보틱스 임직원이 아이들에게 협동로봇의 개념과 기본작동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2 두산로보틱스 수원공장 내 자동화 셀에서 작업자와 협동로봇이 함께 로봇을 만들고 있는 모습.
- 3 두산로보틱스가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팔공초·중학교에 기증한 단체급식 튀김솔루션.

/ 두산로보틱스



학교에 단체급식용 '튀김로봇' 기증 조리종사자 조리용 노출 50% 줄여

협동로봇 활용한 간식나눔·체험 행사 아동복지시설 아이들과 추억 만들어

제공하는 등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이어 촬영 기술이 없어 전문가는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카메라로봇 '나나'를 설치해 아이들이 자원봉사자들과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두산로보틱스 임직원 자원봉사자

들은 협동로봇이 직접 튀긴 치킨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보인 협동로봇 튀김 솔루션 '와버트-E'는 로보아르테와 협업해 출시한 솔루션으로, 시간당 50개의 튀김 바스켓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빠지는 치킨은 약 9분 30초, 순살 치킨은 6분 정도면 조리가 가능하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협동로봇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협동로봇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리그2 경남FC, 다음 시즌 새 사령탑에 배성재 감독 선임
▲'이재성 소속팀' 독일 마인츠, 새 사령탑에 피셔 감독 선임
/사진 뉴시스

▲이천수 "역대 최고 조 편성...덴마크 올라와도 해 볼 만하다"
▲아시아유스패러게임 출전 한국 선수단, 결전지 두바이로 출국

▲'조폭 연루설' 조세호... '1박2일'하차 청원에도 무편집
▲시인 류근 "소년원 근처 안 가본 청춘도 있나"...조진웅 옹호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